

가구와 가구원의 변화

가구는 1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이다. 가구는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가구는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일반 가구, 기타 가구로 구분된다. 일반 가구는 혈연 관계로 구성된 친족 가구, 비혈연 관계인 비친족 가구 및 1인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010년 기준 약 1,757만 가구로 5년 전인 2005년의 약 1,599만 가구에 비해 9.9% 증가했다. 1980년과 2010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이 29.8%인데 비해 가구 증가율이 120.3%인 것은 가족의 분화 현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의 구성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1980년에는 친족 가구가 일반 가구의 93.7%를 차지했으나, 2010년에는 74.9%로 감소하고 대신 1인 가구 및 비친족 가구가 늘어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에는 1세대 가구 8.3%, 2세대 가구가 68.5%

1인 가구 4.8%에서 2010년에는 1세대 17.5%, 2세대 51.3%, 1인 가구 23.9%로 구성비가 변하였다. 2세대 비율이 줄어든 대신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 방향은 다문화화, 여성화, 고령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과 취업 인력 교류에 따라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는 결혼 이민, 귀화 등 출생 이외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나 외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외국인 가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문화 인구의 변화를 혼인, 이혼, 출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혼인은 2008년 약 3.7만 건(전체 혼인의 11.2%)에서 2014년 약 2.4만 건(전체 혼인의 8.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을 유형별로 보면, 2014년 기준 '한국 남성+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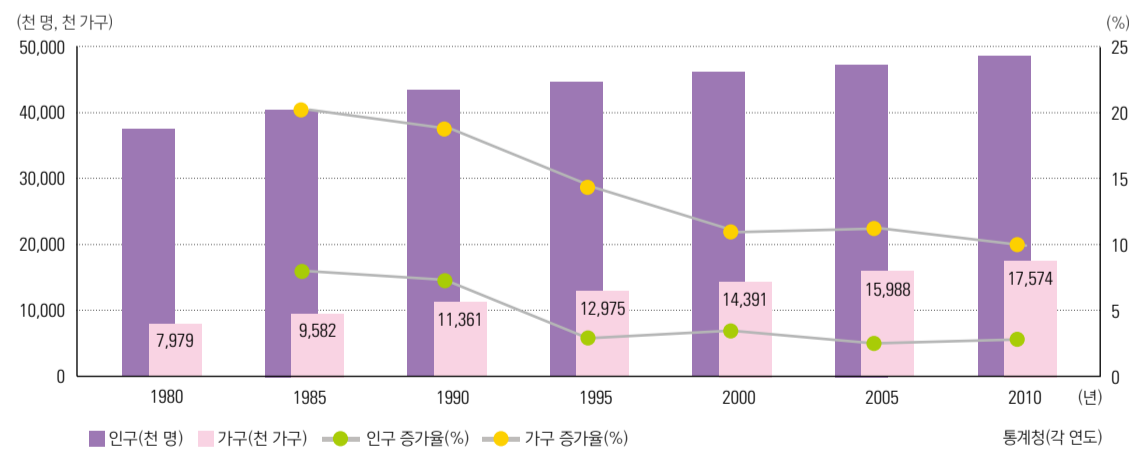
여성' 63.6%, '외국 남성+한국 여성' 24.1%, 기타 유형 12.3%로 2008년에 비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다문화 이혼은 2014년 약 1.3만 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11.2%를 차지한다. 다문화 출생은 2008년 약 1.3만 명(전체 출생자의 2.9%)에서 2014년 약 2.1만 명(전체 출생자의 4.9%)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다문화 출생을 유형별로 보면 한국 부(父)+외국 모(母)가 전체의 67.1%, 외국 부(父)+한국 모(母)가 14.9%, 기타 18.0%를 차지한다.

둘째, 가치관이 변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단독 가구가 증가하면서 인구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 특성 중 여성화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는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다. 여성 가구주는 미혼, 사별, 이혼 등으로 남성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배우자가 있더라도 경제를 책임지는 세대주인 경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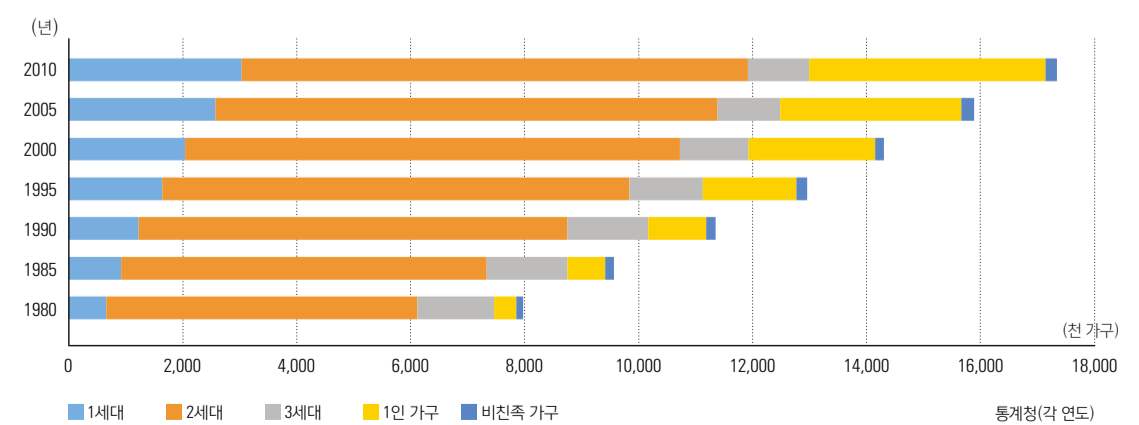
여성 가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여성 가구주 비율은 1975년 12.8%에서 2010년 2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 가구주의 혼인 상태를 보면 사별이 3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혼, 이혼 순이다. 여성 가구주가 늘고 있는 것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여성 노인, 이혼 여성과 미혼 여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이다. 노령화 지수는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며, 1966년 7.6에서 2010년 69.7로 증가하였다.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 39.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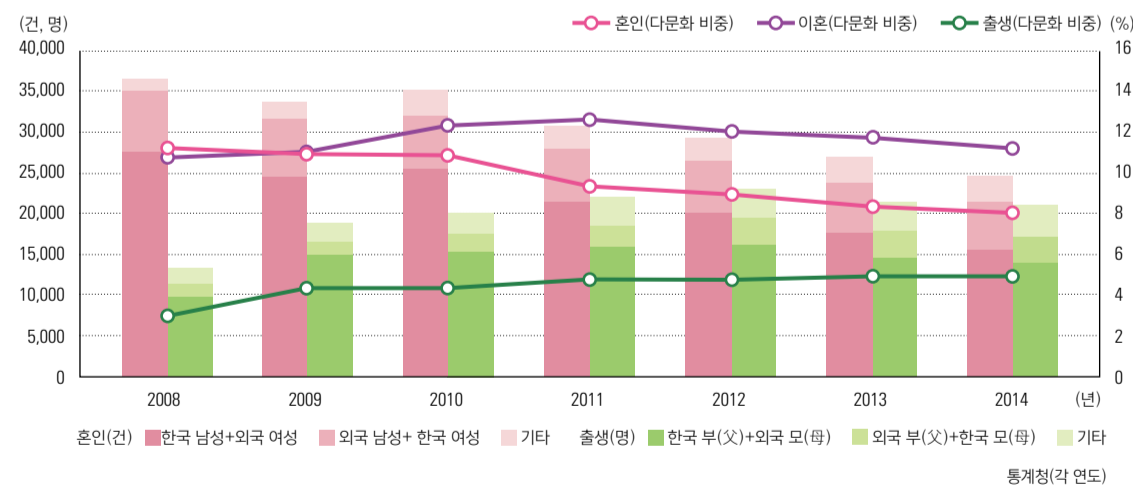
인구 및 가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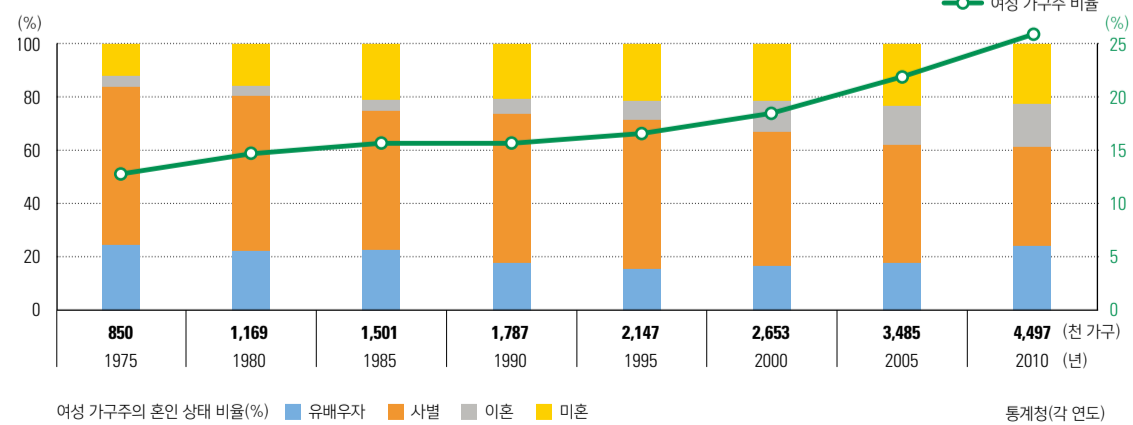
세대 구성의 변화



다문화 인구 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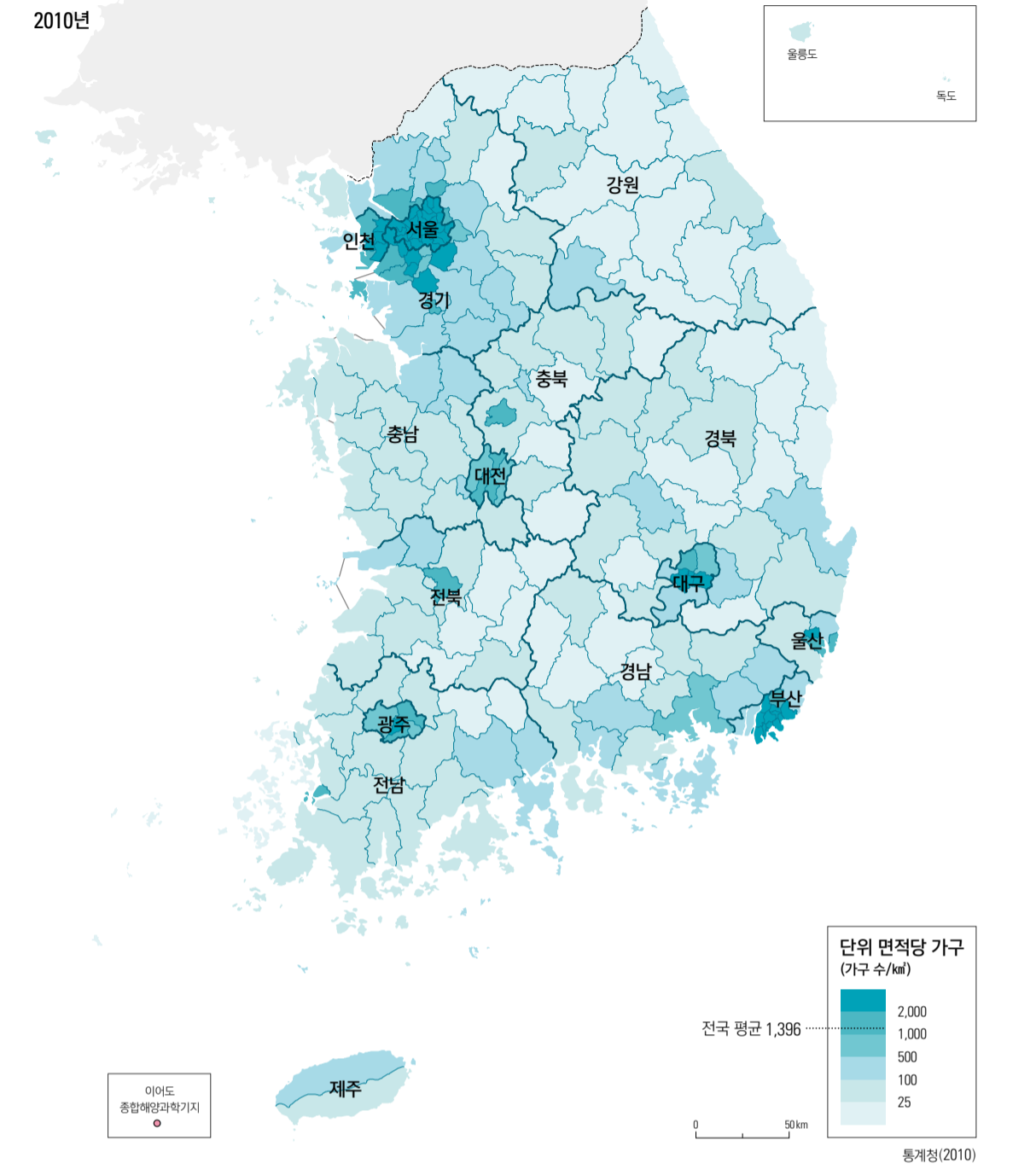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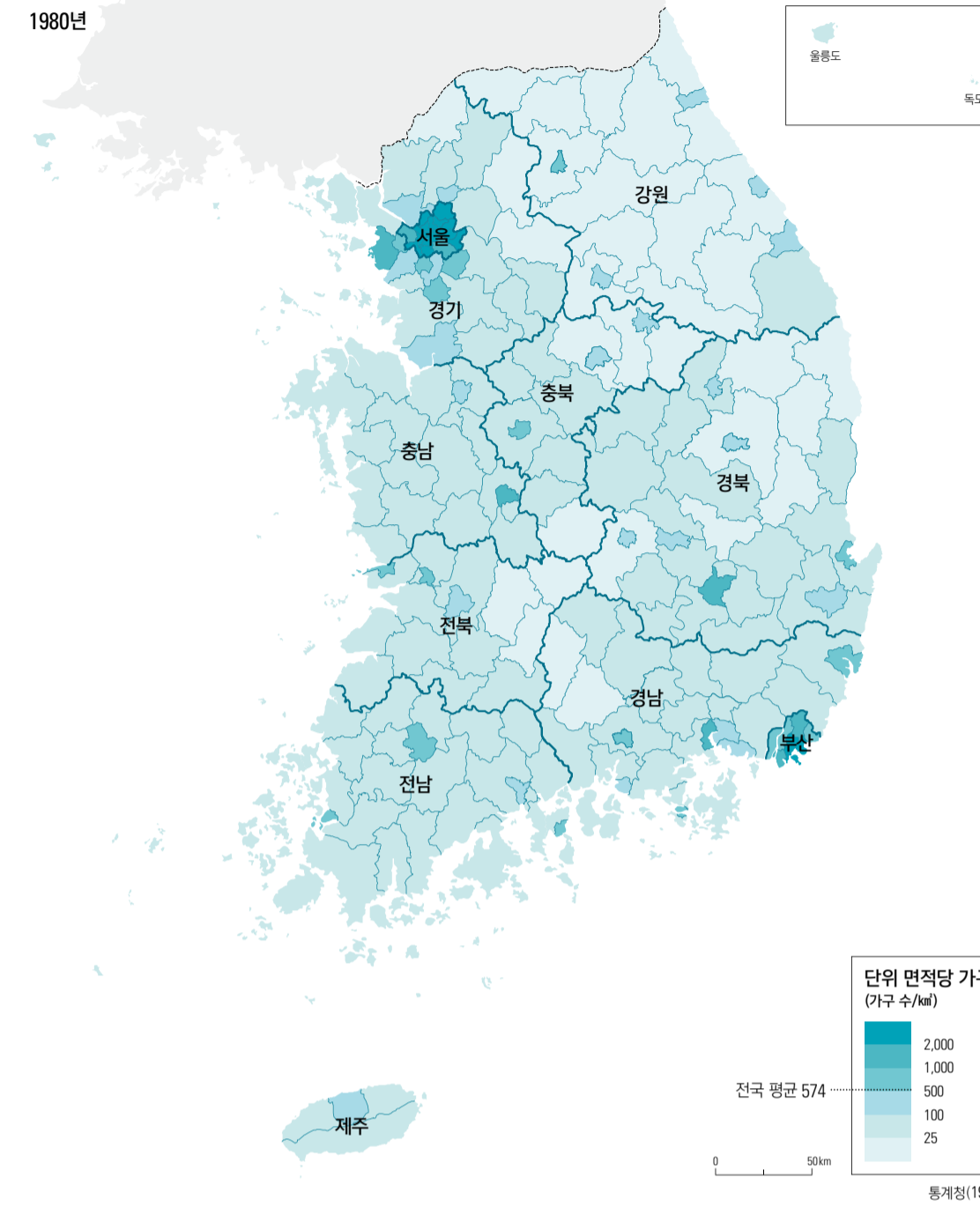


여성 가구주의 비율과 혼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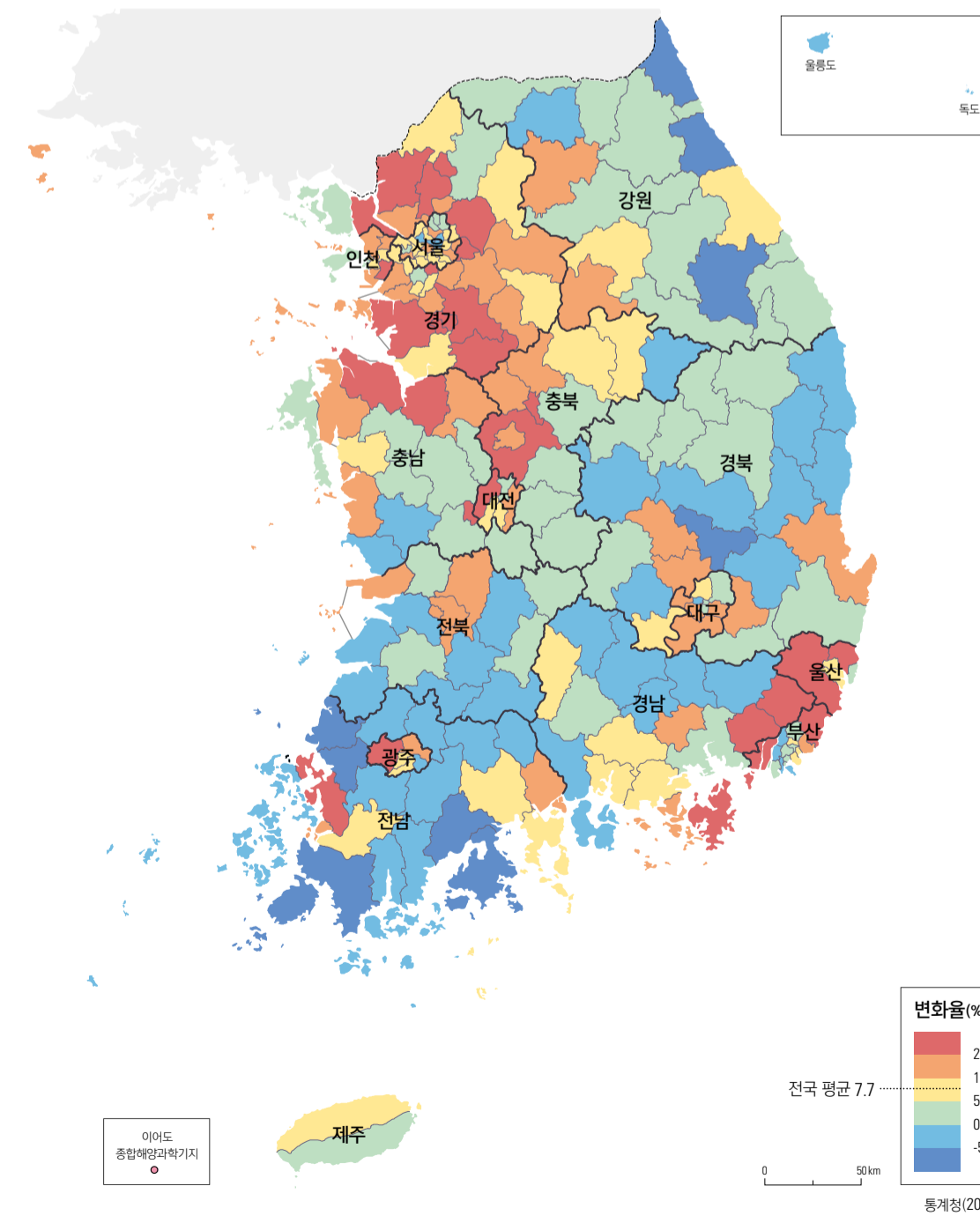


가구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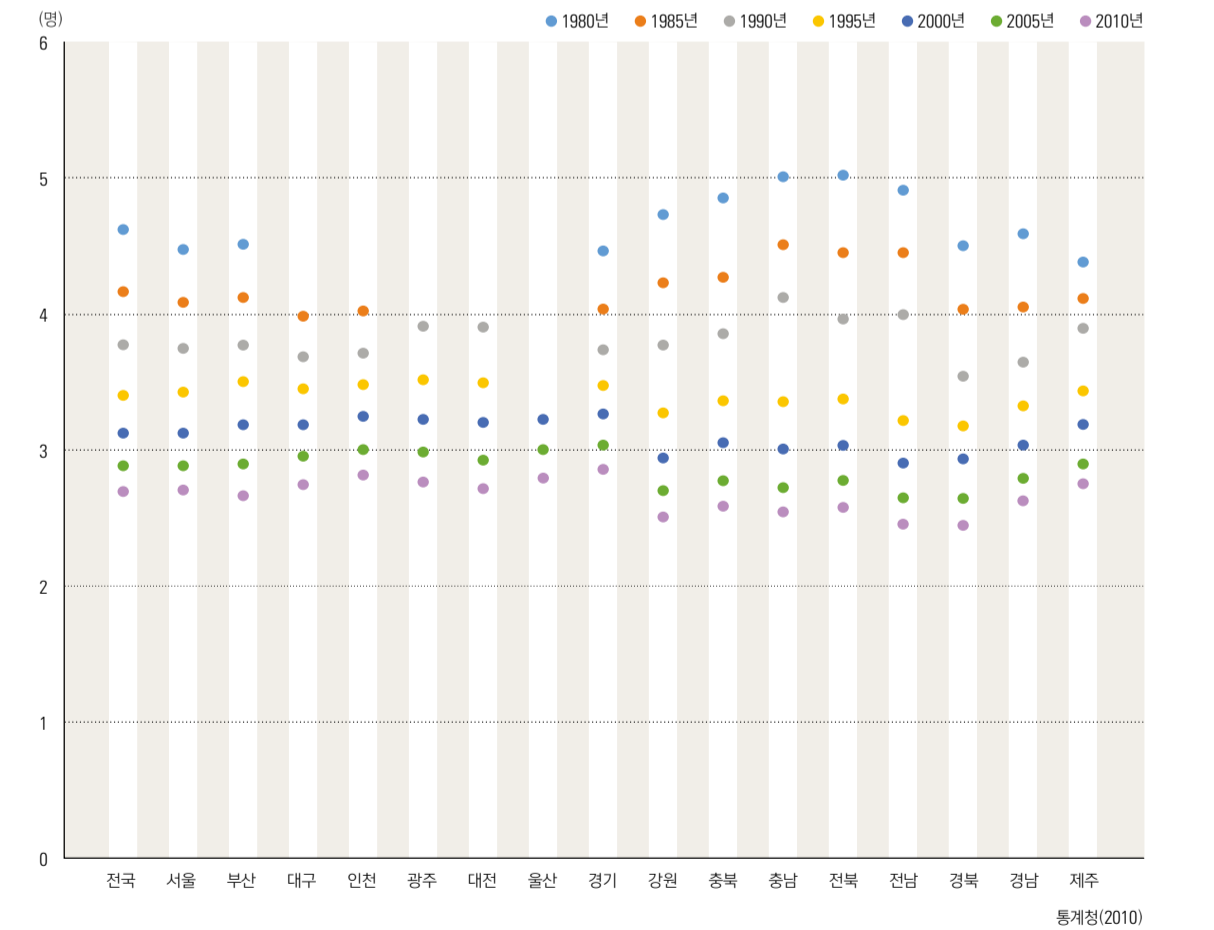
단위 면적당 가구



가구 수 변화율(2005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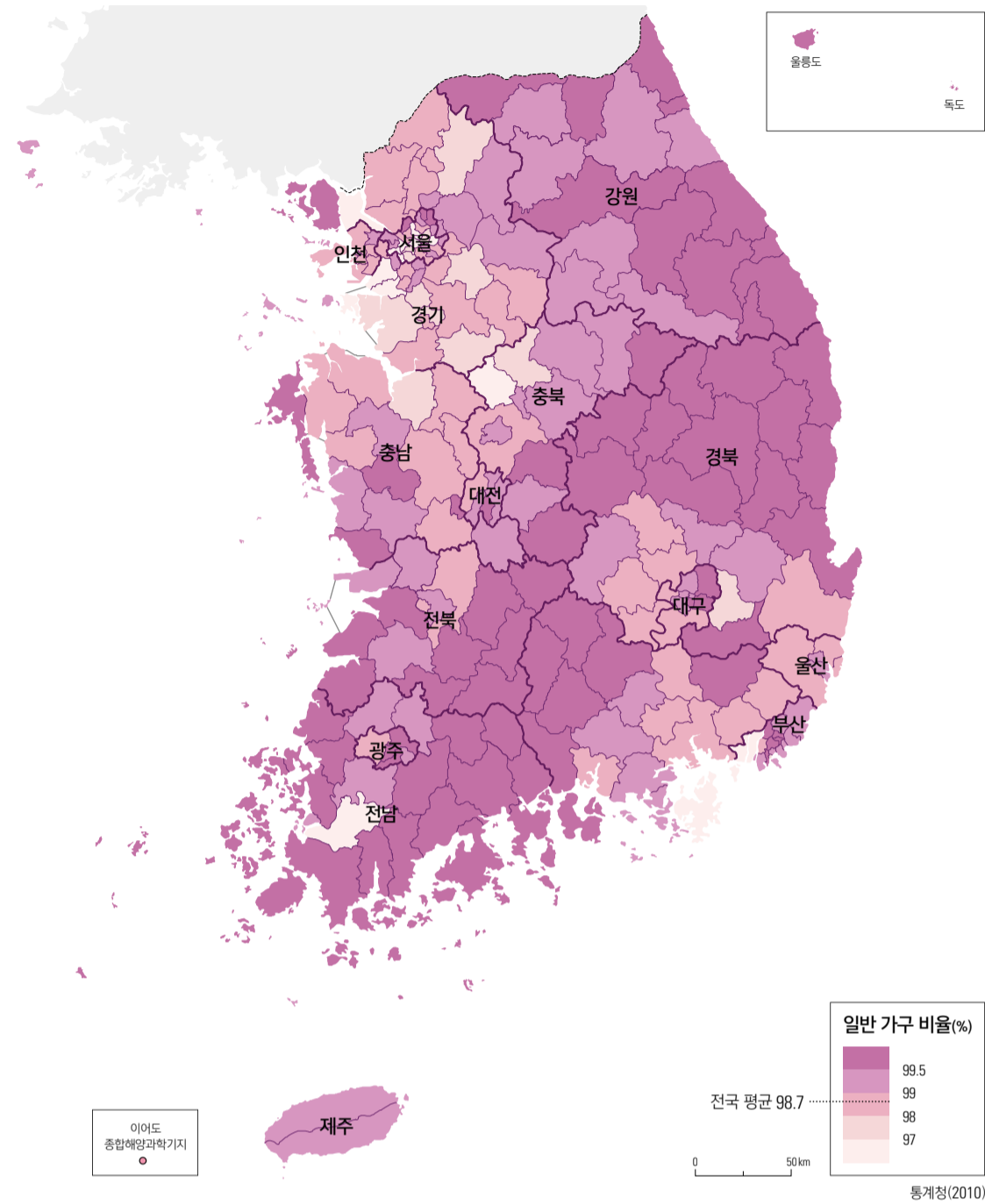
평균 가구원 수



가구 수를 시·군·구 단위 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 평균 574가구/km에서 2010년에는 평균 1,396가구/km로 단위 면적당 가구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5 - 2010년 간의 가구 수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군위, 전남 영광, 전남 함평 등 농촌 지역은 -8% 감소한데 비해 경기 화성, 경기 오산, 충남 아산 등 수도권 및 공업 지역은 40% 이상 증가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2010년 현재 2.69명으로 1980년 4.62명, 1990년 3.77명, 2000년 3.12명, 2005년 2.8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1980년에는 전북이 5.02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4.38명으로 가장 적었다. 2010년에는 경기도가 2.8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2.44명으로 가장 적었다.

일반 가구 비율(2010년)



시·도별 가구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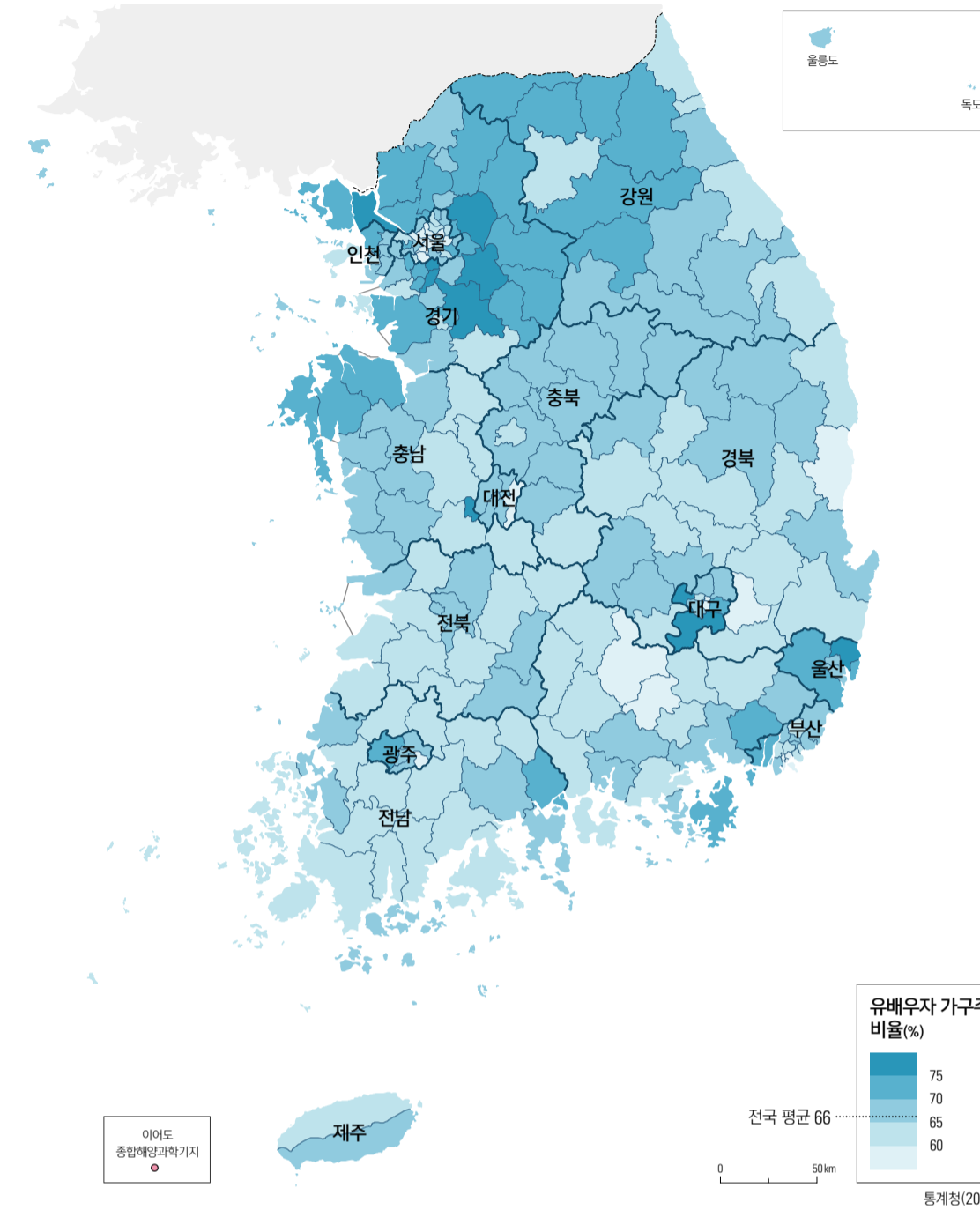
행정구역	총가구		일반 가구		기타 가구		집단 가구	
	2005년	2010년	2005년	2010년	2005년	2010년	2005년	2010년
서울특별시	3,341,352	3,577,497	3,309,890	3,504,297	28,147	70,364	3,315	2,836
부산광역시	1,190,107	1,251,756	1,186,378	1,243,880	3,127	7,081	602	785
대구광역시	817,620	873,934	814,585	868,327	2,571	5,054	464	553
인천광역시	828,012	929,489	823,023	918,850	4,620	9,667	369	972
광주광역시	461,387	518,742	460,090	515,855	921	2,241	376	646
대전광역시	480,466	536,297	478,865	532,643	1,193	3,176	408	478
울산광역시	340,652	377,938	339,095	373,633	1,332	3,931	225	374
경기도	3,361,657	3,908,058	3,329,177	3,831,134	28,766	71,618	3,714	5,307
강원도	522,225	560,589	520,628	557,751	940	2,180	657	658
충청북도	507,541	564,614	505,203	558,796	1,489	4,894	849	924
충청남도	663,445	758,552	659,871	749,035	2,342	8,100	1,232	1,417
전라북도	621,735	663,695	619,958	659,946	1,058	2,934	719	815
전라남도	667,962	684,866	666,319	681,431	897	2,712	746	843
경상북도	943,135	1,014,345	938,840	1,005,349	2,810	7,201	1,485	1,795
경상남도	1,061,259	1,165,209	1,056,007	1,151,172	4,028	11,956	1,224	2,081
제주특별자치도	179,719	188,365	179,199	187,323	354	799	166	243
합계	15,988,274	17,574,067	15,887,128	17,339,422	84,595	213,918	16,551	20,727

통계청(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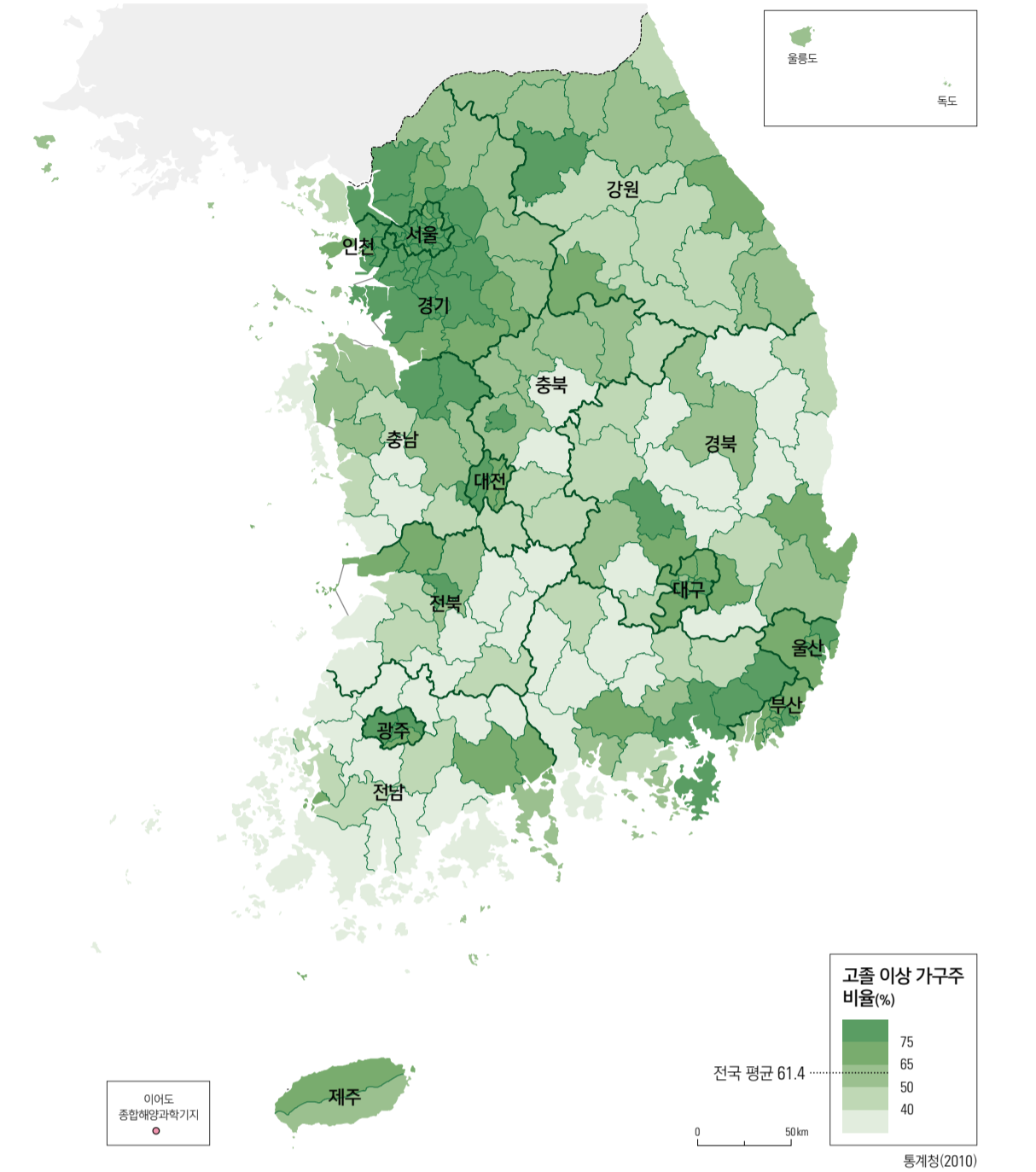
전체 가구에서 일반 가구의 비율은 2005년 99.4%에서 2010년 98.7%로 줄어듦으로, 기타 가구의 비율은 2005년 0.6%에서 2010년 1.3%로 늘었다. 기타 가구는 크게 집단 가구와 외국인 가구로 구성된다. 집단 가구는 6인 이상이 생활하는 비혈연 집단 가구와 기숙사, 보육원, 노인 요양 시설, 수녀원 등 특정 시설에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외국인 가구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다. 단,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 가구로 분류된다. 2005년 집단 가구비는 0.1%에서 2010년에도 0.1%로 비율이 변하지 않은 반면, 외국인 가구비는 2005년 0.5%에서 2010년 1.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타 가구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가구가 많은 서울(2.0%), 경기(2.0%)가 가장 높으며, 전남(0.5%), 강원(0.5%)이 기타 가구비가 낮다. 기타 가구원은 서울 약 22만 명, 경기도는 약 31만 명이다. 서울은 외국인 가구원의 비율이 높는데 비해, 경기도는 집단 가구원의 비율이 높다. 이는 경기도에 집단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가구원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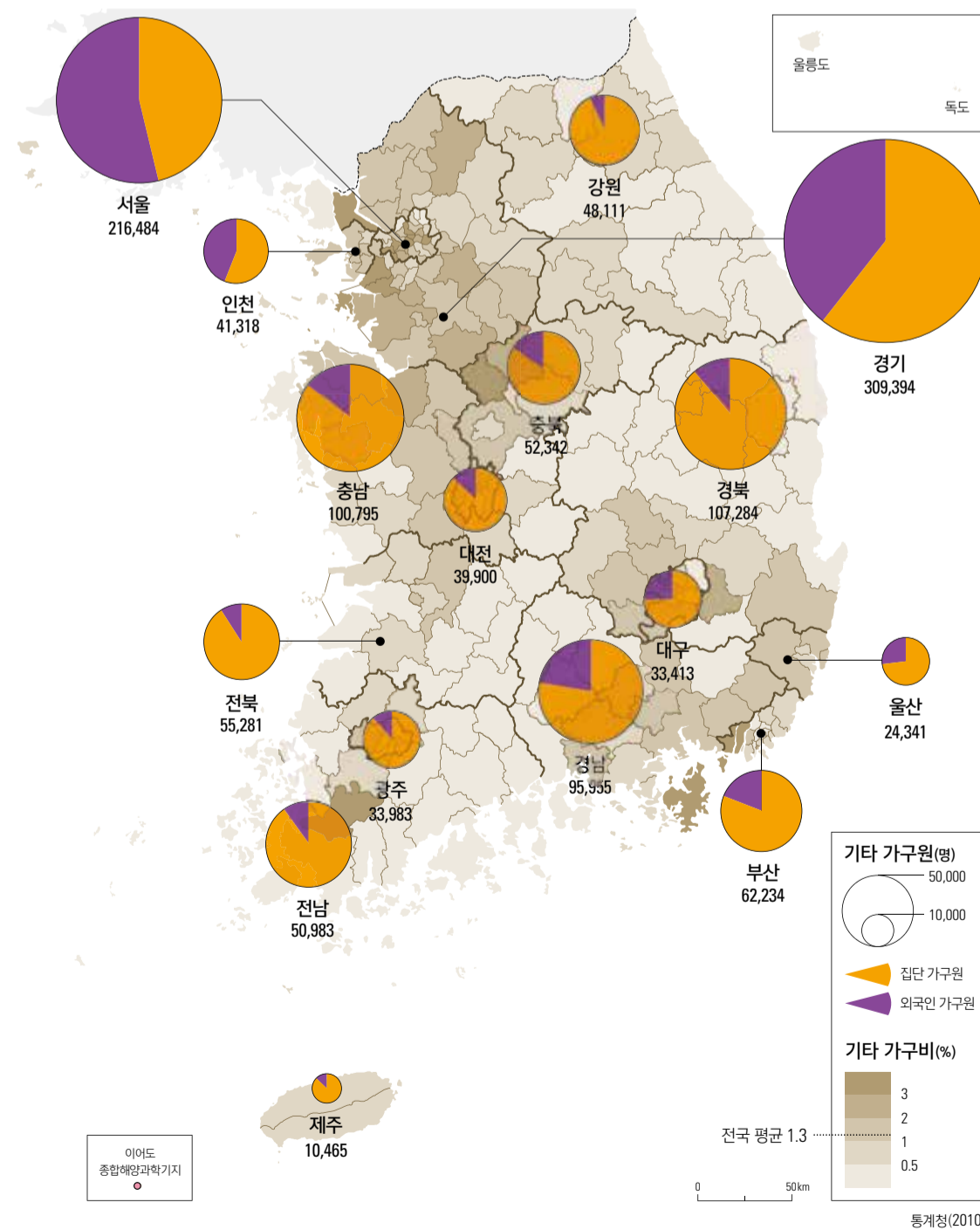
유배우자 가구주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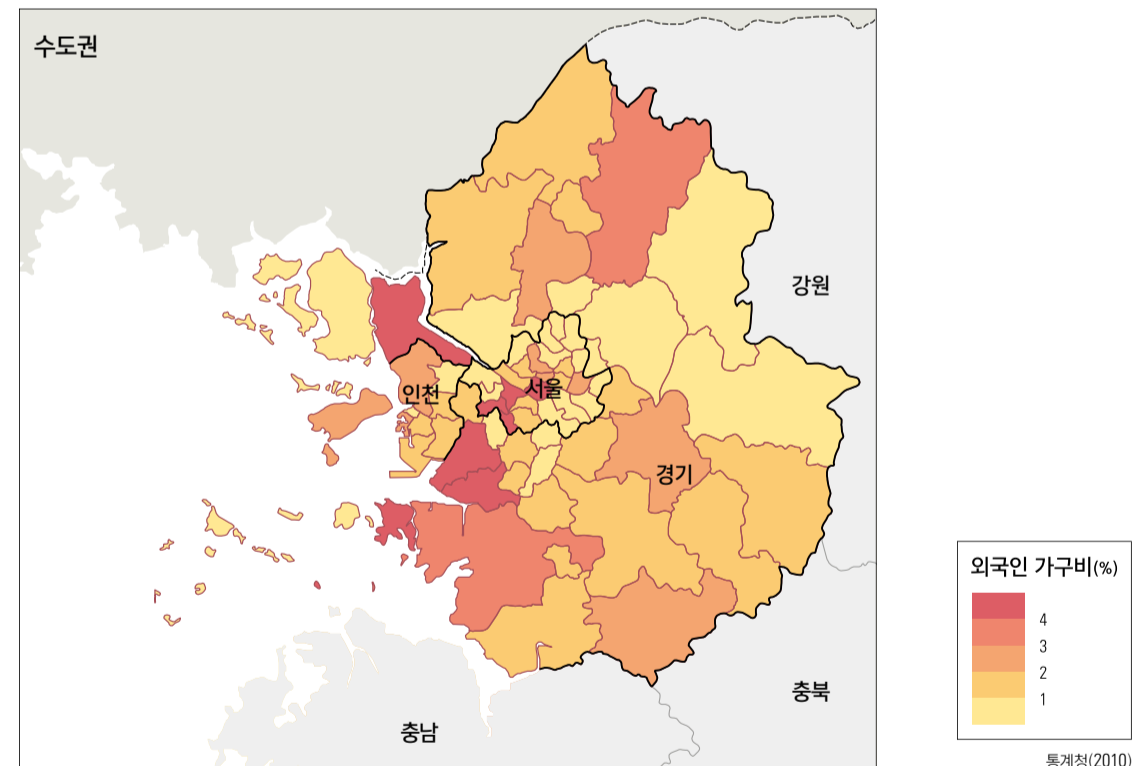
고졸 이상 가구주 비율(2010년)



기타 가구의 구성원(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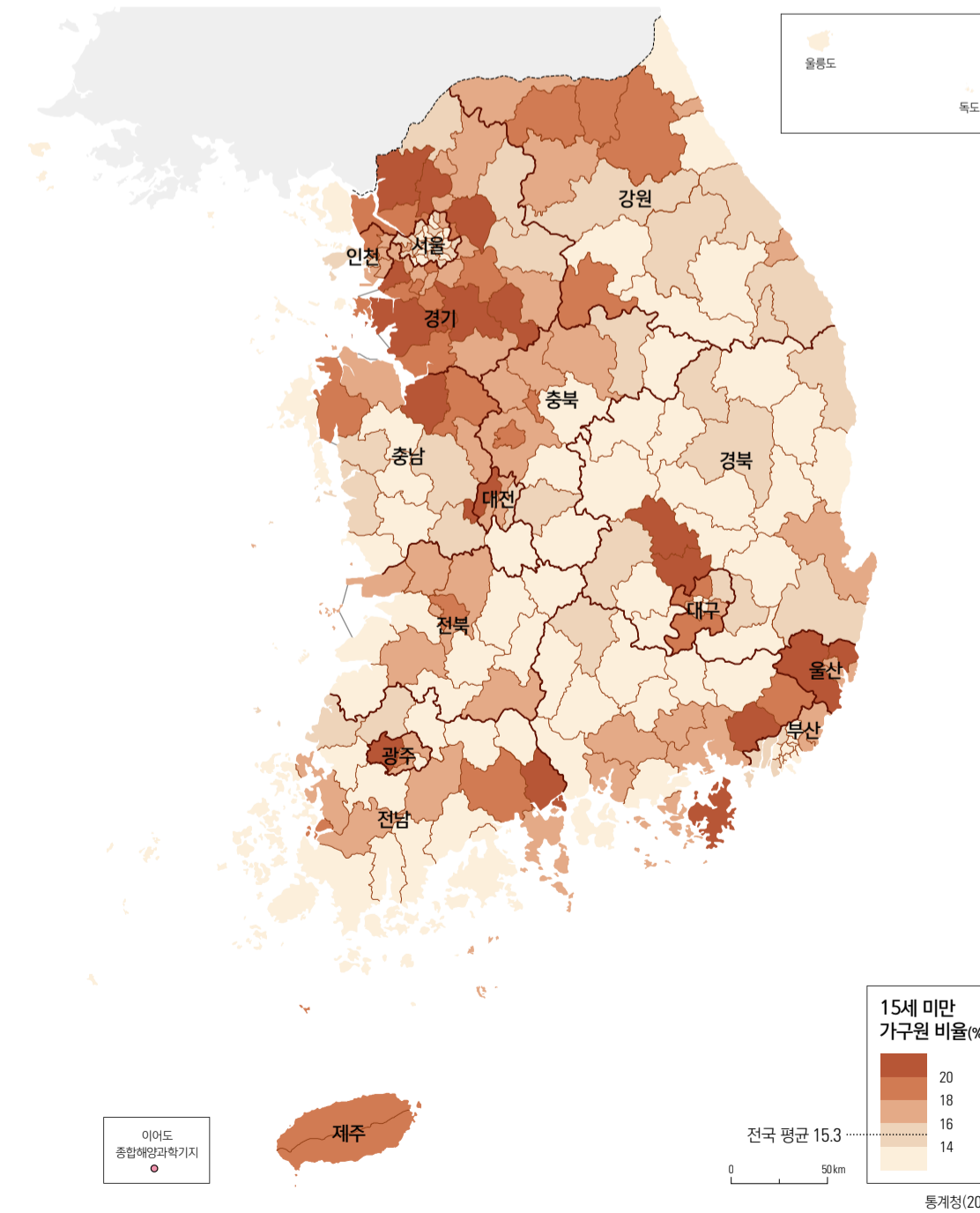


외국인 가구비(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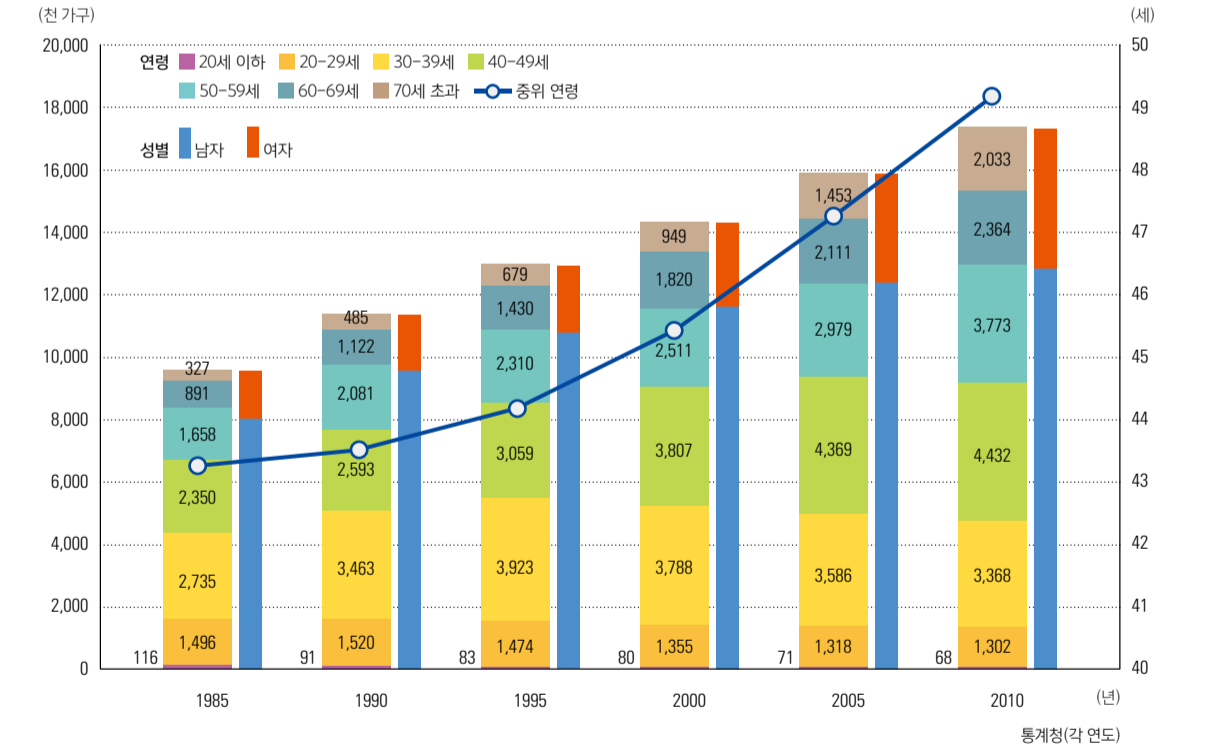


2010년의 외국인 가구비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2.0%, 경기 1.8%인데 비해, 전남, 강원 등은 0.4%로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가구 비율이 높다. 한편 외국인 평균 가구원은 서울(1.65명), 경기(1.70명), 전남(1.87명), 제주(1.55명)로 전국 외국인 평균 가구원 1.72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부산 강서(7.0%), 전남 영암(6.6%), 서울 영등포(6.5%), 경기 김포(6.3%) 등 수도권 및 부산의 외국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경북 청송(0.04%), 전북 무주(0.5%), 전남 고흥(0.6%) 등 농촌 지역에는 순수 외국인 가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 가구원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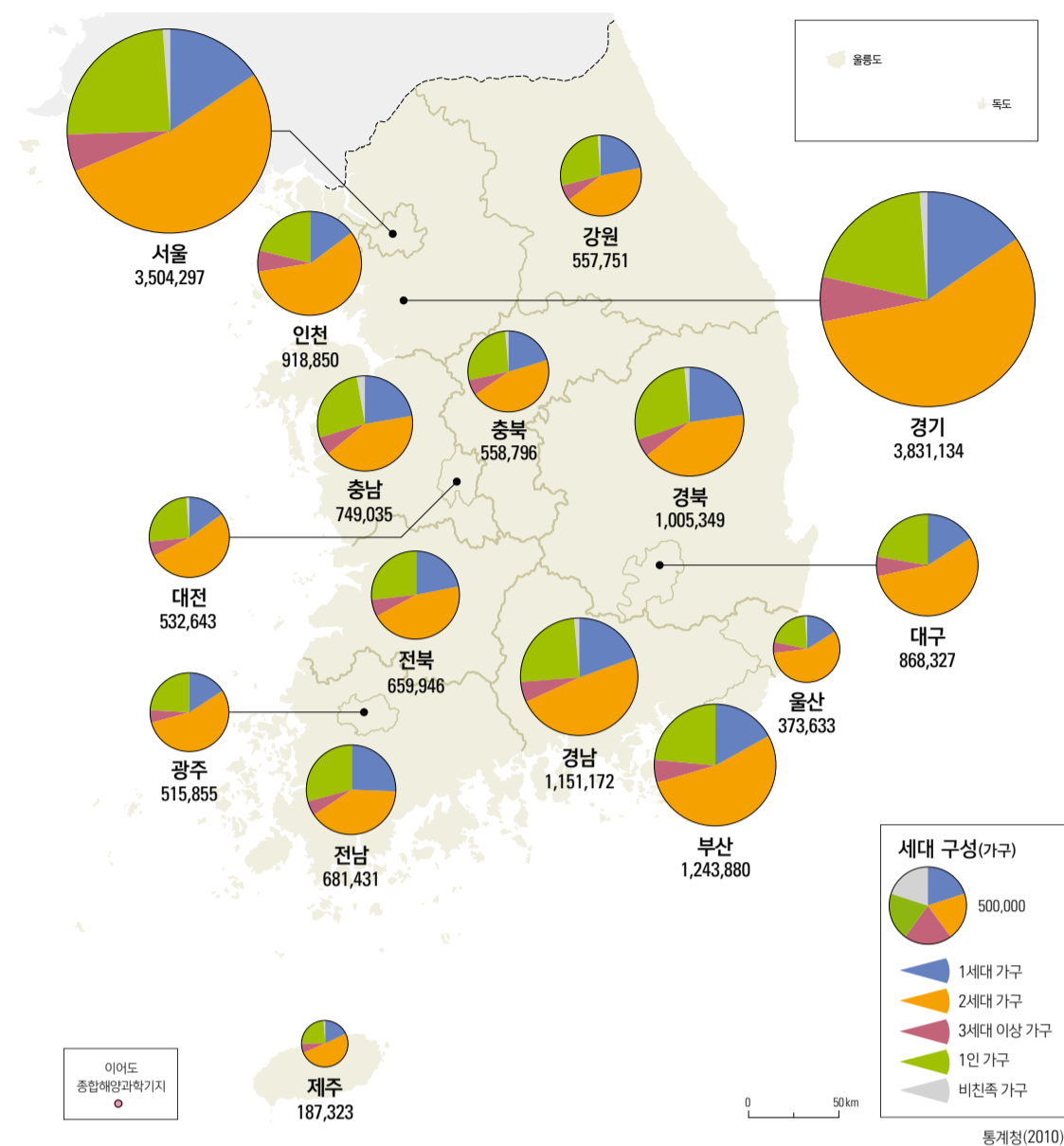


가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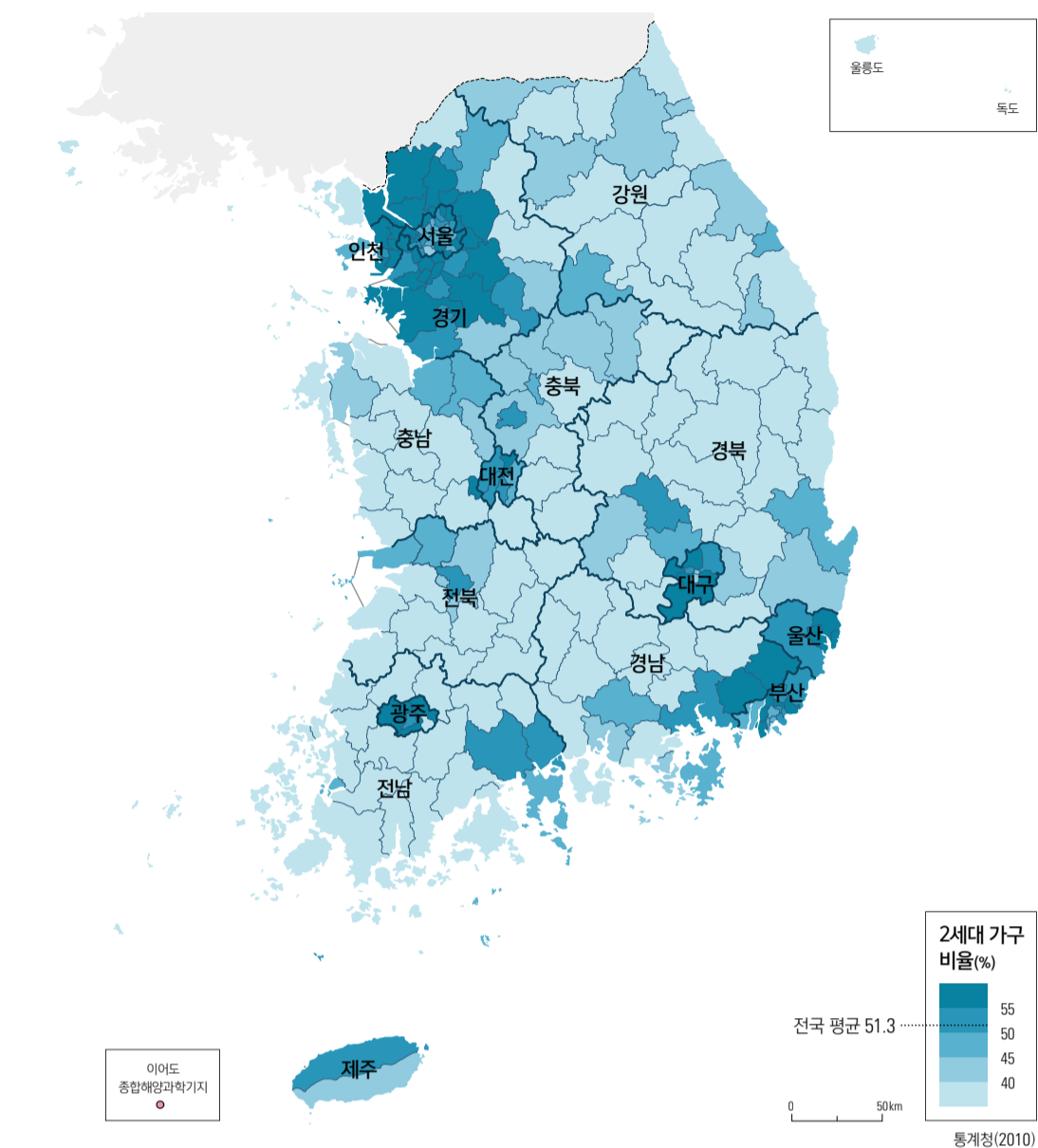


가구의 혼인 상태는 유배우자, 미혼, 사별, 이혼 등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유배우자 비율을 보면 2010년 현재 전국 평균 66%로 총남 계통(82%), 울산 북구(79%), 경기 용인(78%), 경기 과천시(76%) 등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교육 상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전국 평균 61.4%이다. 지역별로 서울 서초(94%), 서울 강남(93%), 경기 과천(90%), 대전 유성(90%) 등 대도시 지역이 높는데 비해 전남 고흥(25%), 전북 임실(25%), 경남 합천(29%), 경북 영양(31%) 등 농촌 지역이 낮다. 15세 미만 가구원의 경우 전국 평균 15.3%이며, 충남 계룡(24%), 광주 광산(24%), 경기 화성(24%) 등 대도시 및 신도시 지역이 높는데 비해 경북 군위(8%), 경북 의성(8%), 전남 신안(8%) 등 농촌 지역이 낮다. 2010년 가구의 중위 연령은 49.0세로, 1985년 41.9세, 1995년 43세, 2005년 46.7세로 갈수록 높아져 가구주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가구를 연령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1985년에는 30대와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30대가 줄어들고, 50대 및 60대 이상이 늘어났다. 가구의 성별은 1985년 남성 84.3%, 여성 15.7%에서 2010년 남성 74.1%, 여성 25.9%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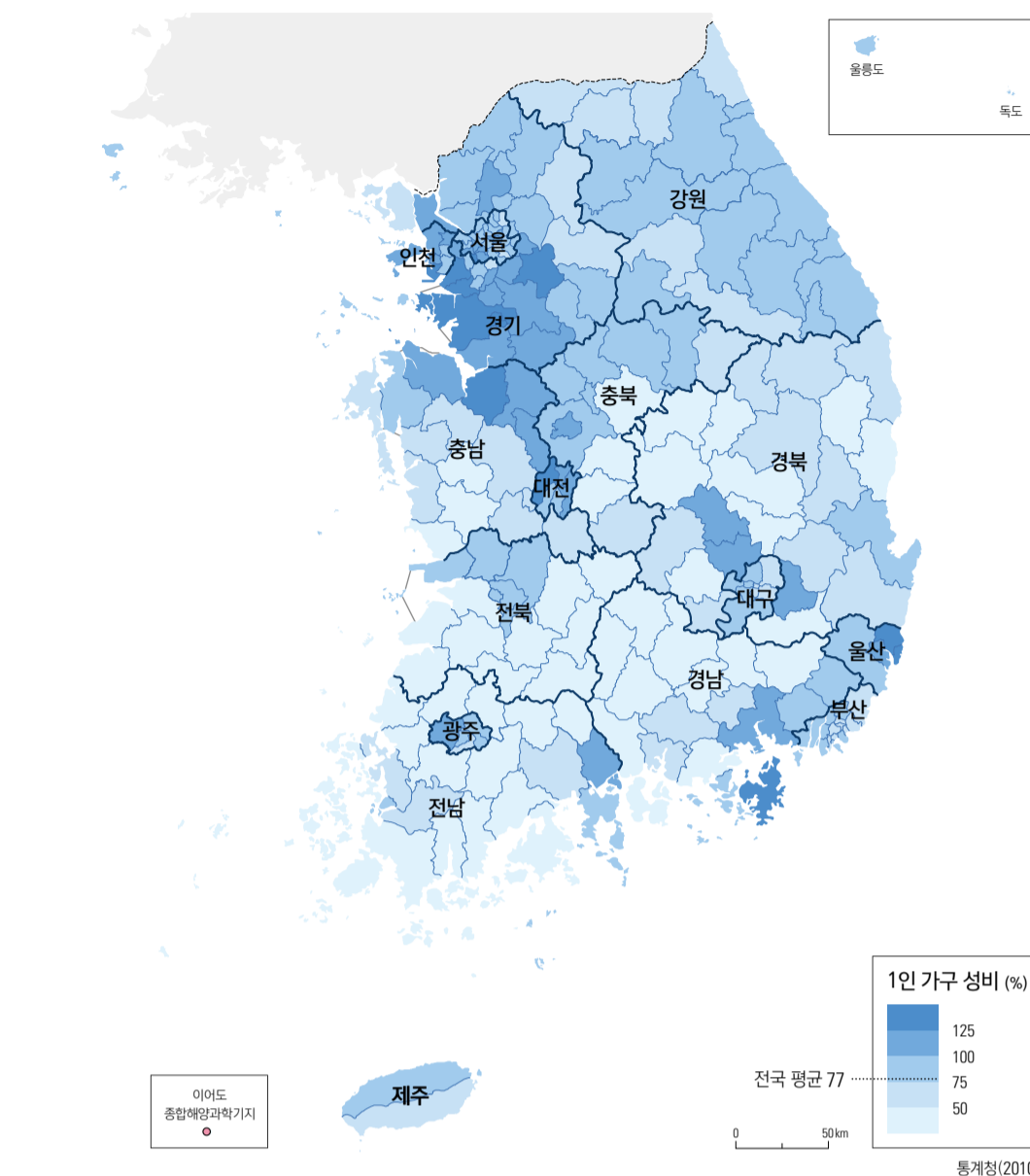
일반 가구의 세대 구성(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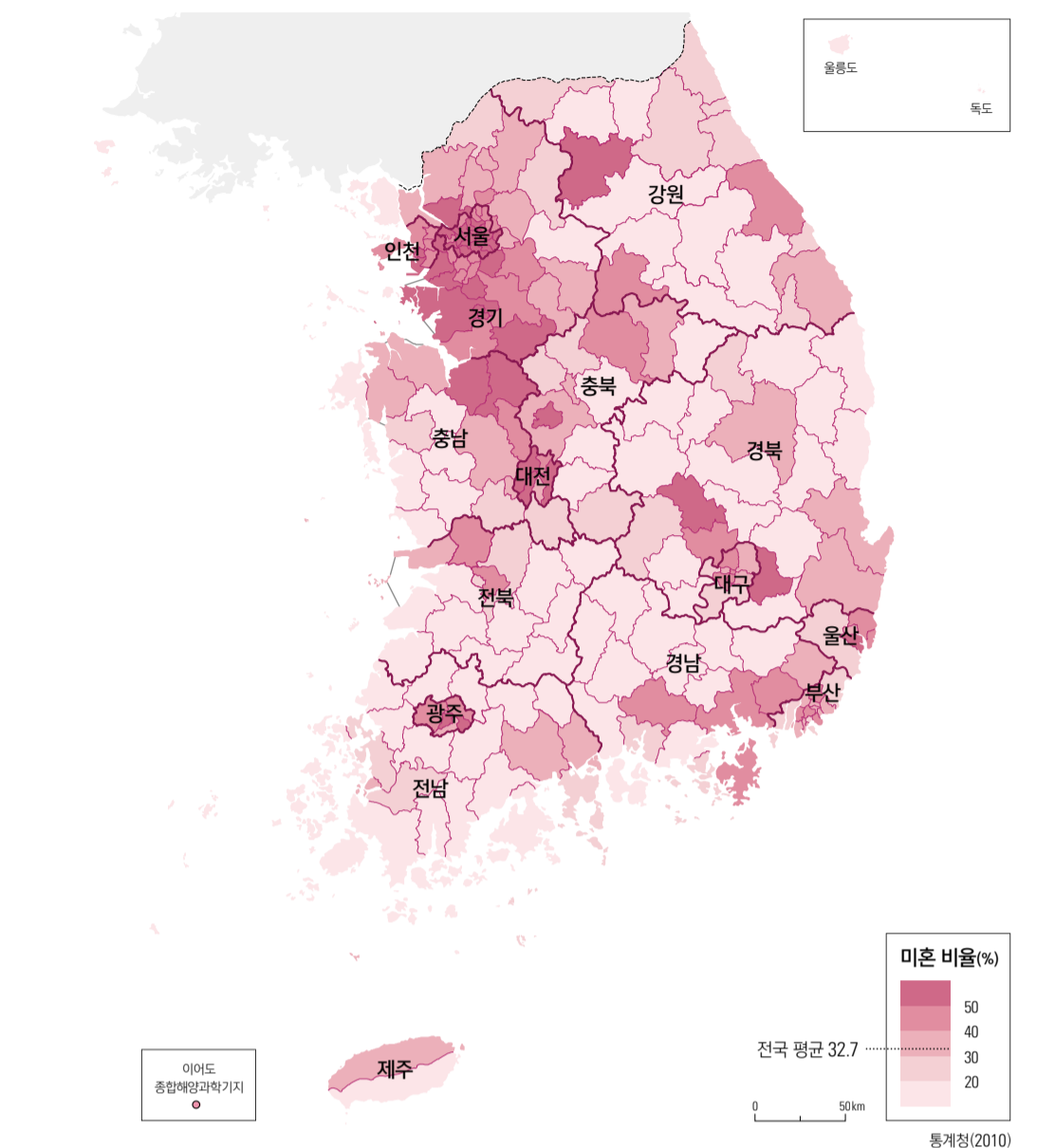
2세대 가구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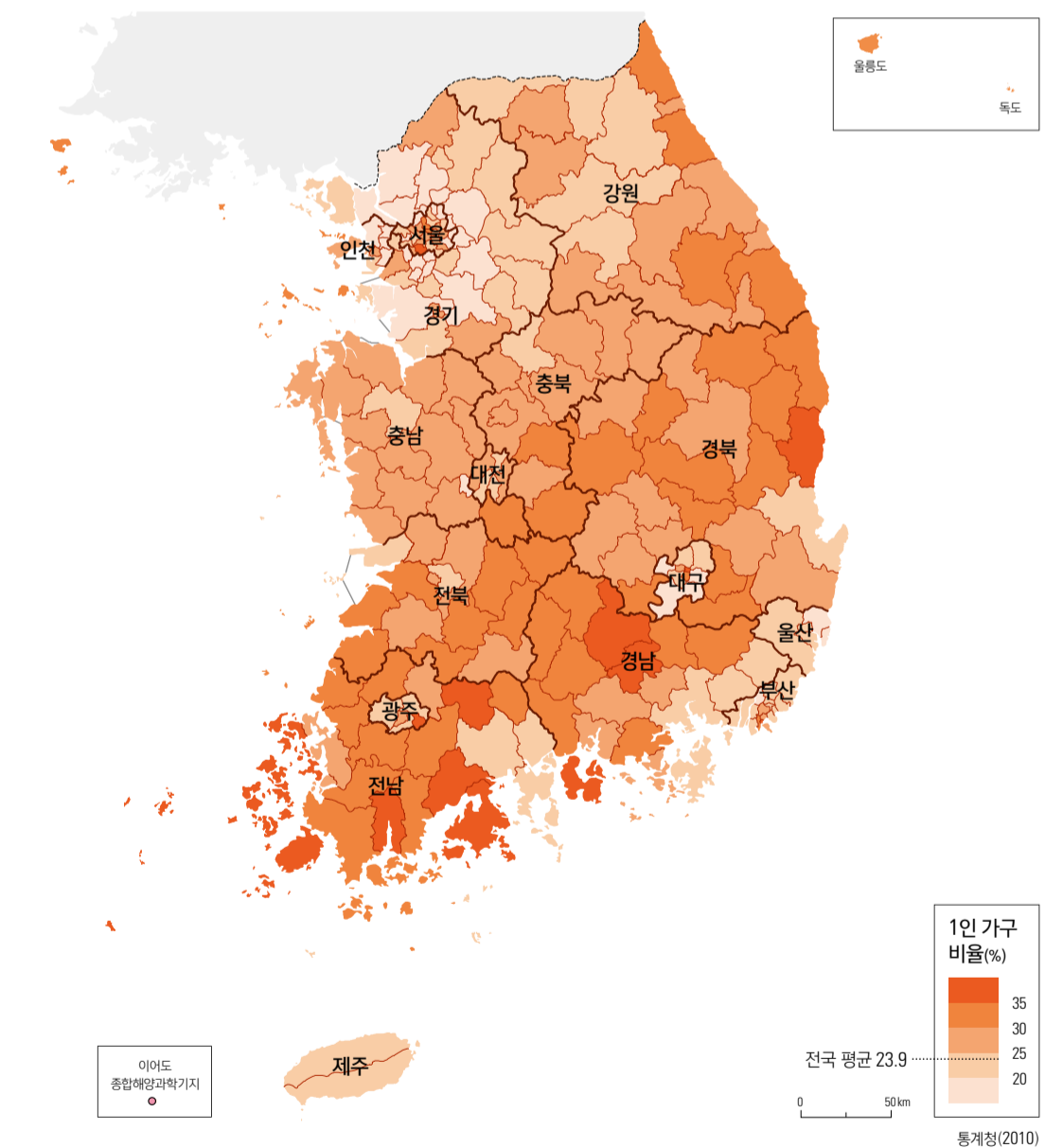
1인 가구 성비(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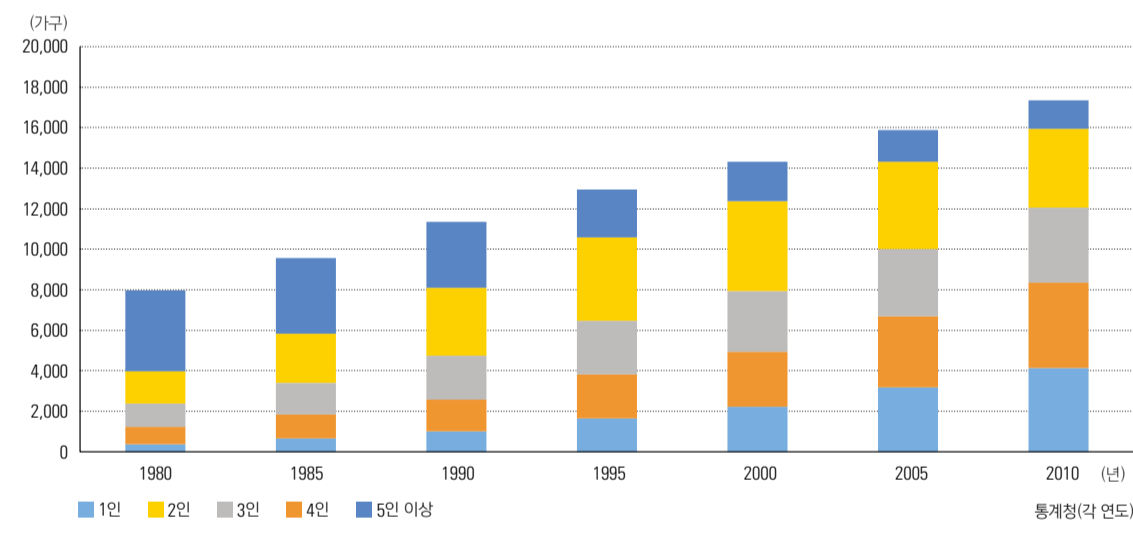
1인 가구 중 미혼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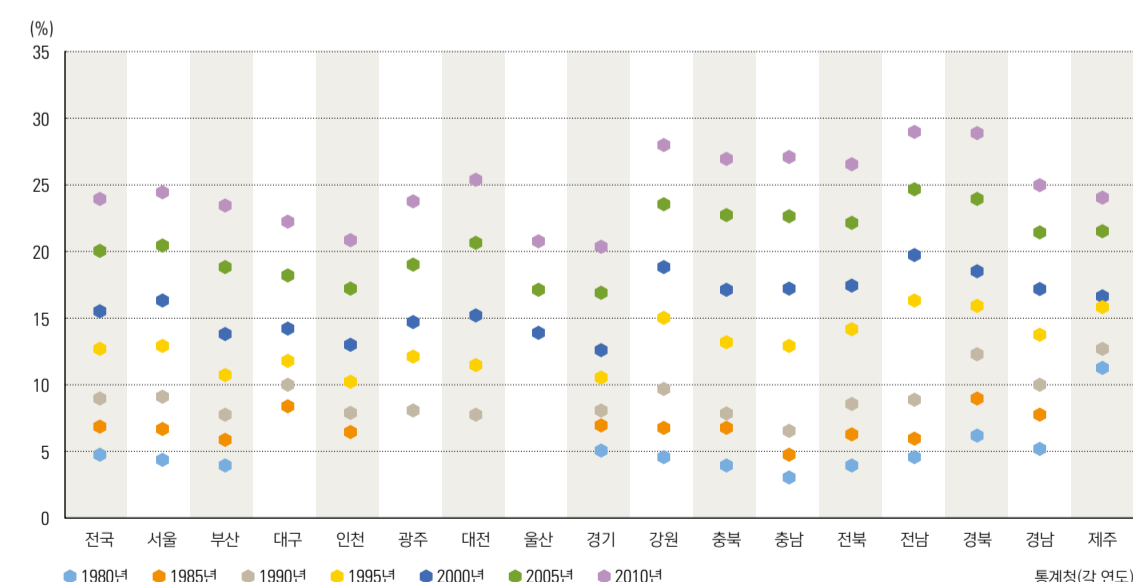
1인 가구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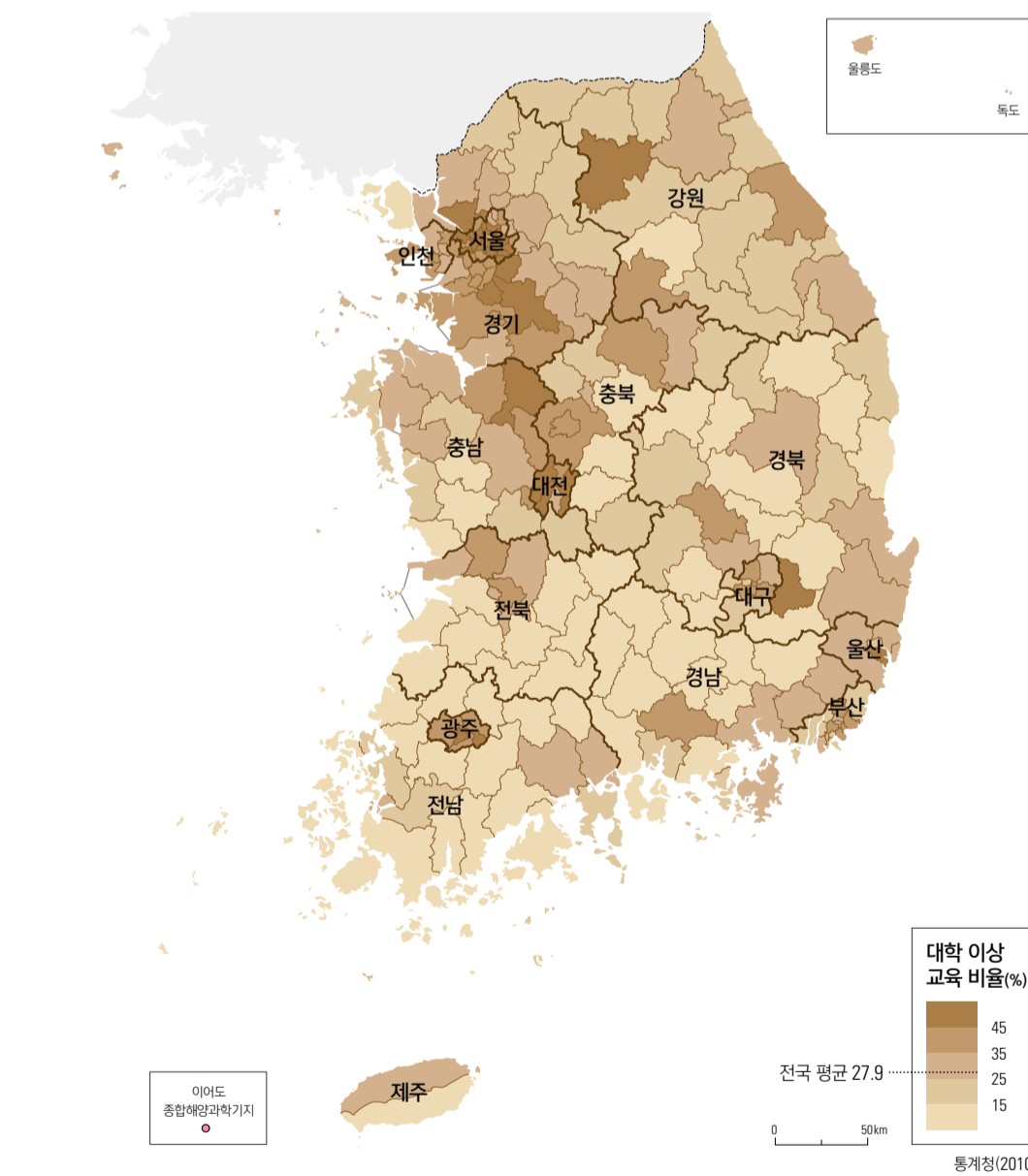
가구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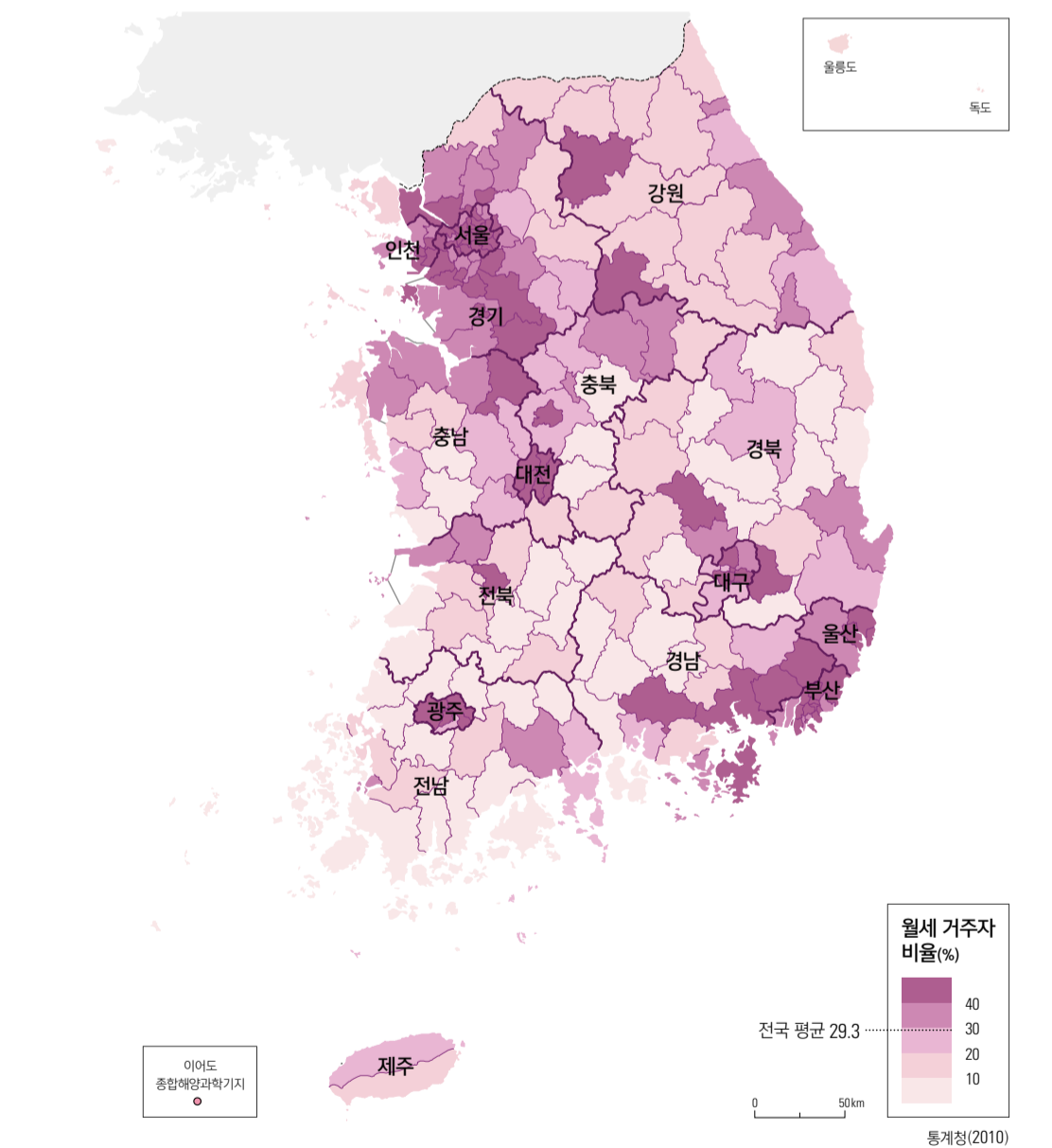
시도별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 중 대학 이상 교육 비율(2010년)



1인 가구 중 월세 거주자 비율(2010년)



일반 가구는 가구주와 가족의 친족 관계에 따라 부부 혹은 형제자매로 구성된 1세대 가구, 부부와 자녀, 부부와 부모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부부, 자녀, 부모, 손자녀 등으로 구성된 3세대 이상 가구,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 비친족 가구로 구분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의 세대 구성은 2세대(51.3%)가 가장 비율이 높으며, 1인 가구(23.9%)가 두

번째 비율을 차지한다. 2세대 가구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57.2%), 울산(57.1%)이 가장 높으며 전남(39.4%), 경북(41.3%)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가구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에는 5인 이상 가구원의 비율이 50%로 최대인데 비해 1인 가구원은 4.8%에 불과하였다.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24.3%로 최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인

가구는 23.9%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 이유는 결혼관의 변화 및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한 미혼, 이혼 등 혼인 상태 변화와 평균 수명 증가, 배우자 사별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1980년 4.5%에서 1995년 12.9%,

2010년 24.4%로 전국 1인 가구비와 비슷한 변화율을 보인다.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지역의 추세도 비슷하다. 경기는 1980년 5.1%에서 1995년 10.6%, 2010년 20.3%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전남, 경북 등 농촌 지역은 독거노인들이 많아 2010년 1인 가구비가 약 29%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414만 가구로 일반 가구의 24%를 차지한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192만 가구, 여성은 222만 가구로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 1인 가구의 성비를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 77이며, 경남 남해 31, 전북 순창 31 등 농촌 지역이 낮으며, 경기 시흥 192, 울산 동구 158, 대전 유성 144 등 공장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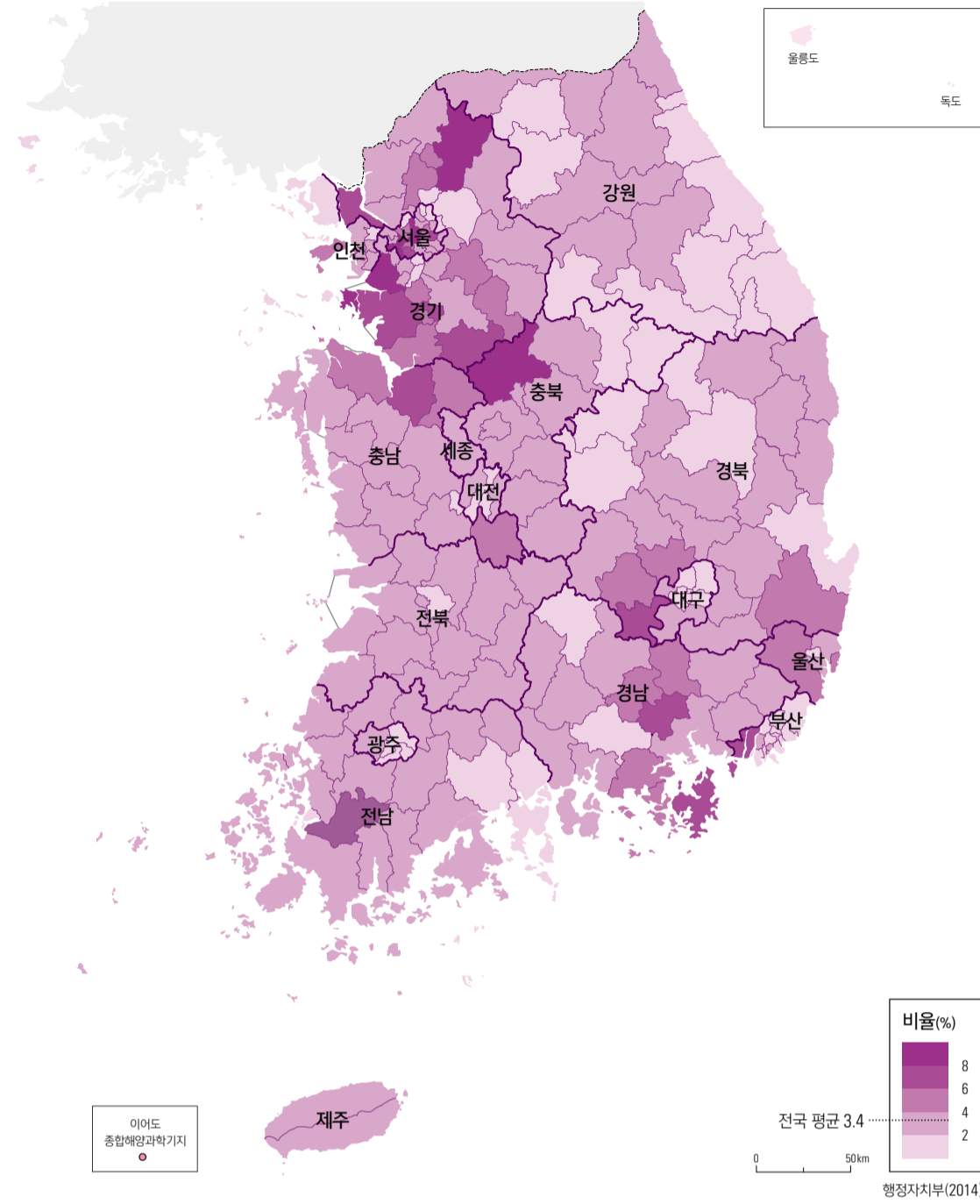
역 및 대도시 지역이 높다. 1인 가구의 혼인 상태를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 32.7%이며, 농촌 지역의 미혼자 비율이 낮는데 비해, 대도시 지역의 미혼자 비율이 높다. 1인 가구의 교육 수준의 경우, 대학 이상 교육 비율은 전국 평균 27.9%이며, 전남 함평 4.9%, 전북 임실 5.8%, 경북 의성 5.9% 등 농촌 지역이 낮으며, 서울 서초 72.3%, 대

전 유성 72.2%, 서울 관악 71.4%로 대도시 지역이 높게 나타난다. 1인 가구의 주거 특성을 월세 거주 비율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 29.3%이며, 대도시 및 공업 지역이 높으며, 미혼자 비율 및 교육 수준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1인 가구의 지역적 특성은 결혼, 취학, 취업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다. 남녀 모두 18세 이후 취학, 취업 등으로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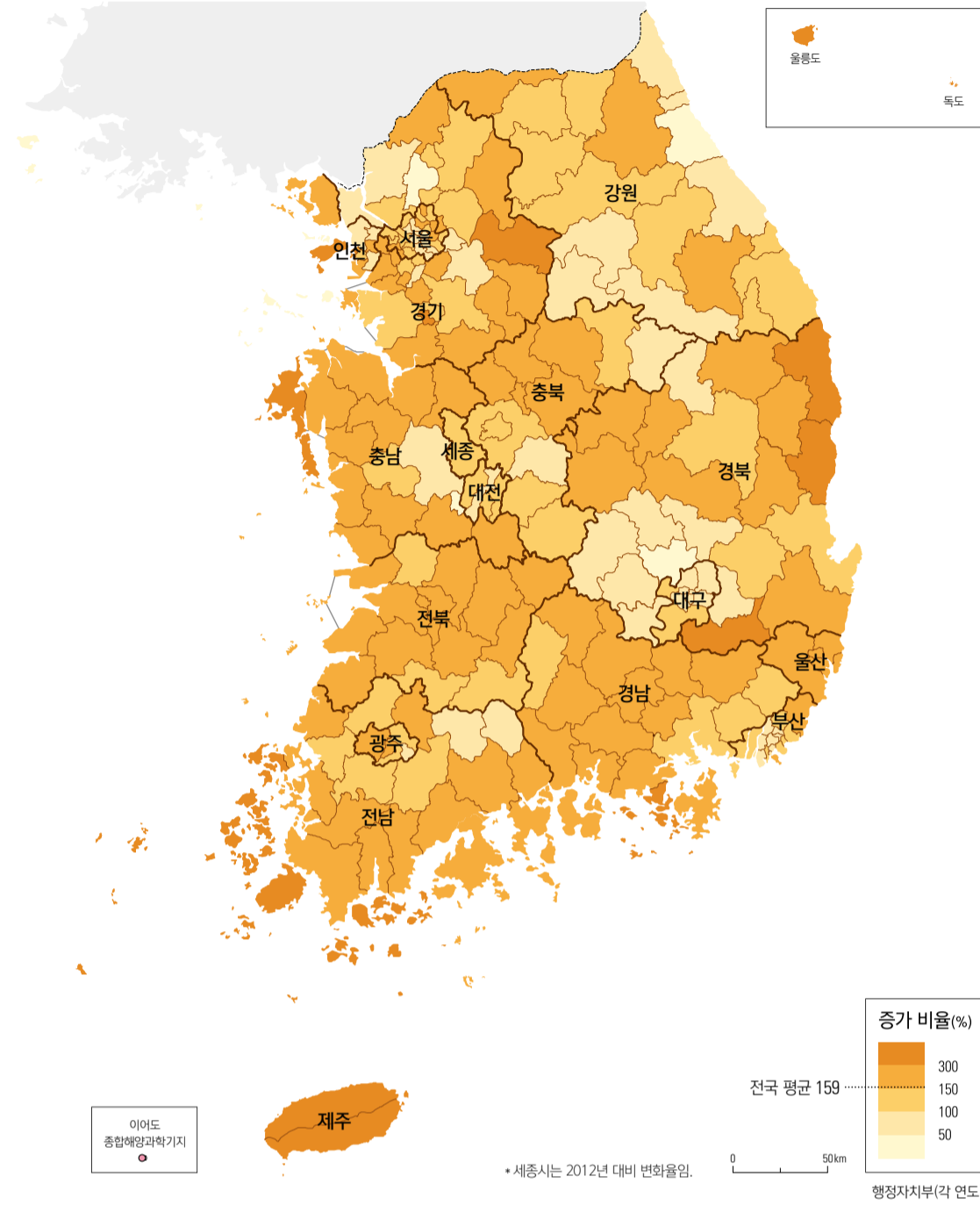
가 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남성은 20대 후반 결혼을 계기로 1인 가구의 수가 감소하지만, 여성 1인 가구는 미혼, 사별, 이혼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지역적으로 대도시와 공업 지역에 취학, 취업으로 인한 미혼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농촌 지역에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인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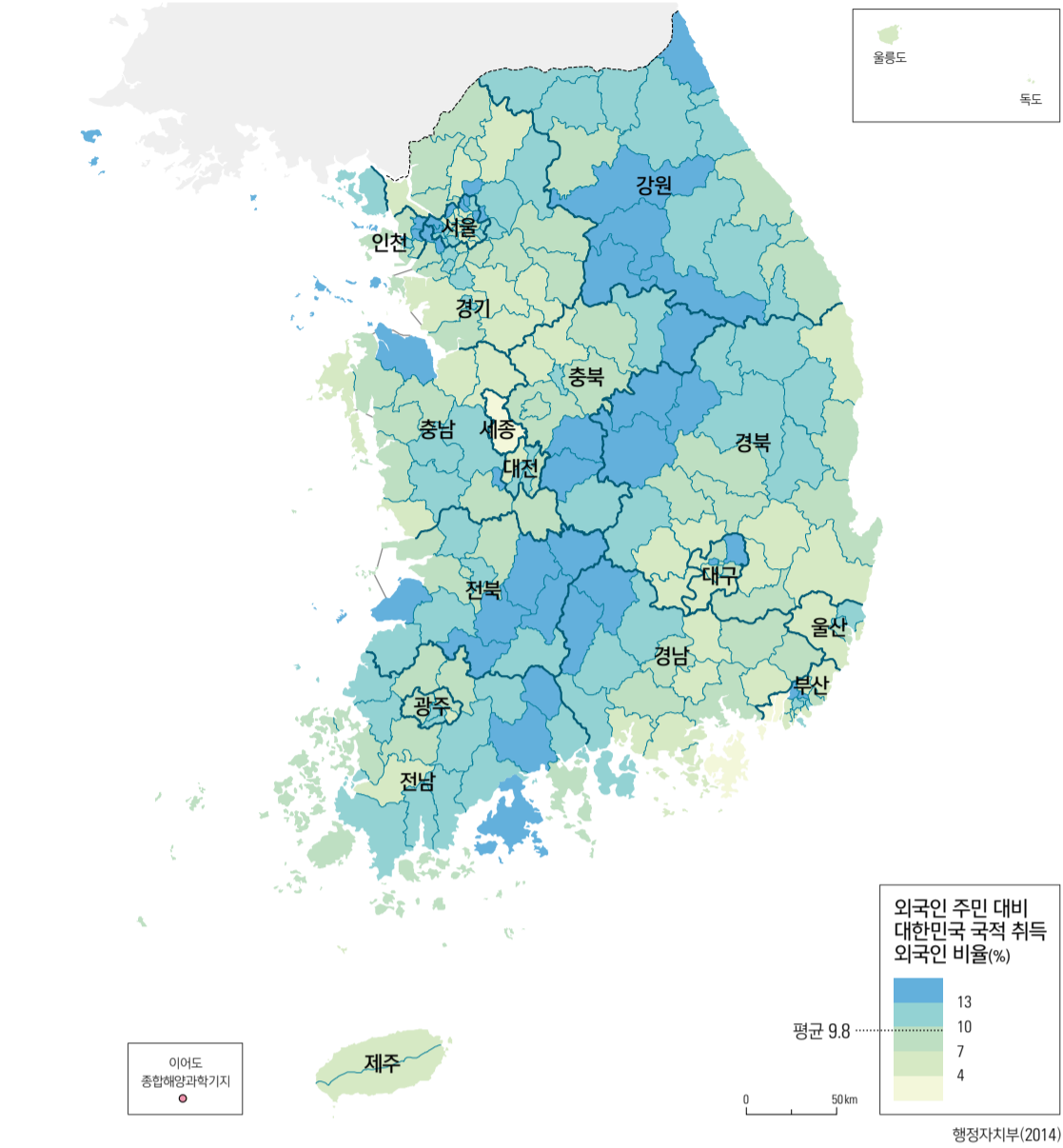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비율(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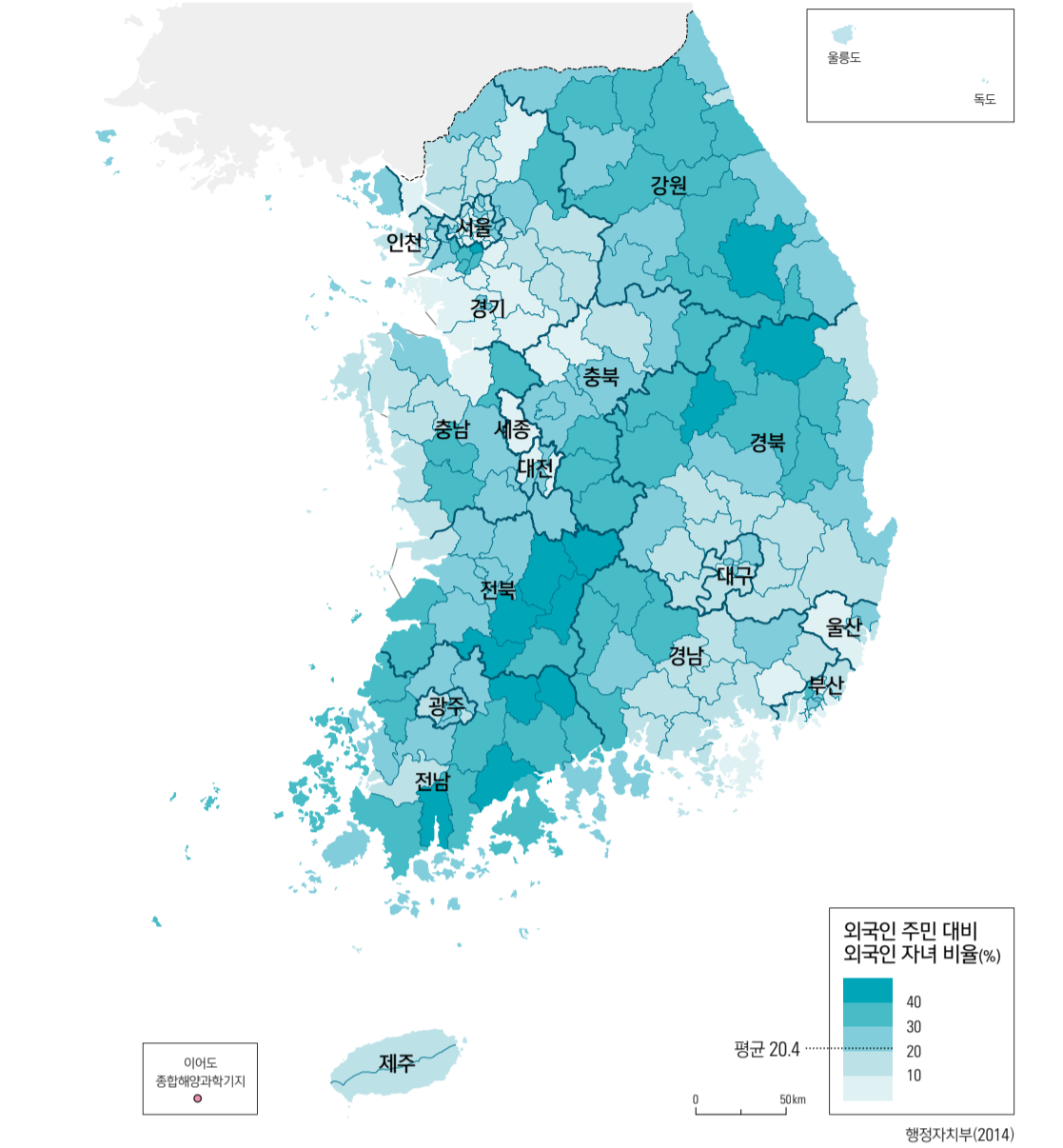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증가율(2006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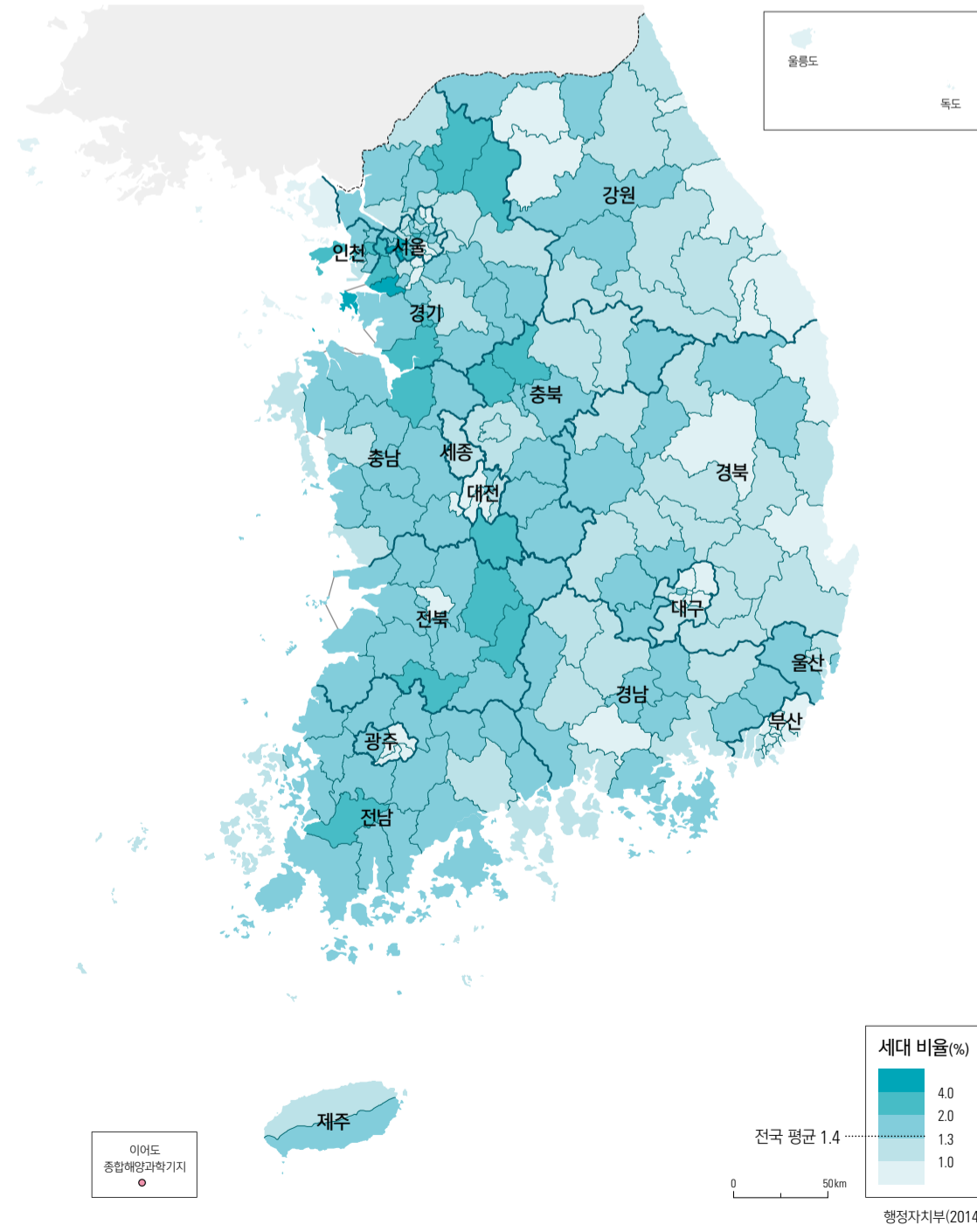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대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외국인 비율(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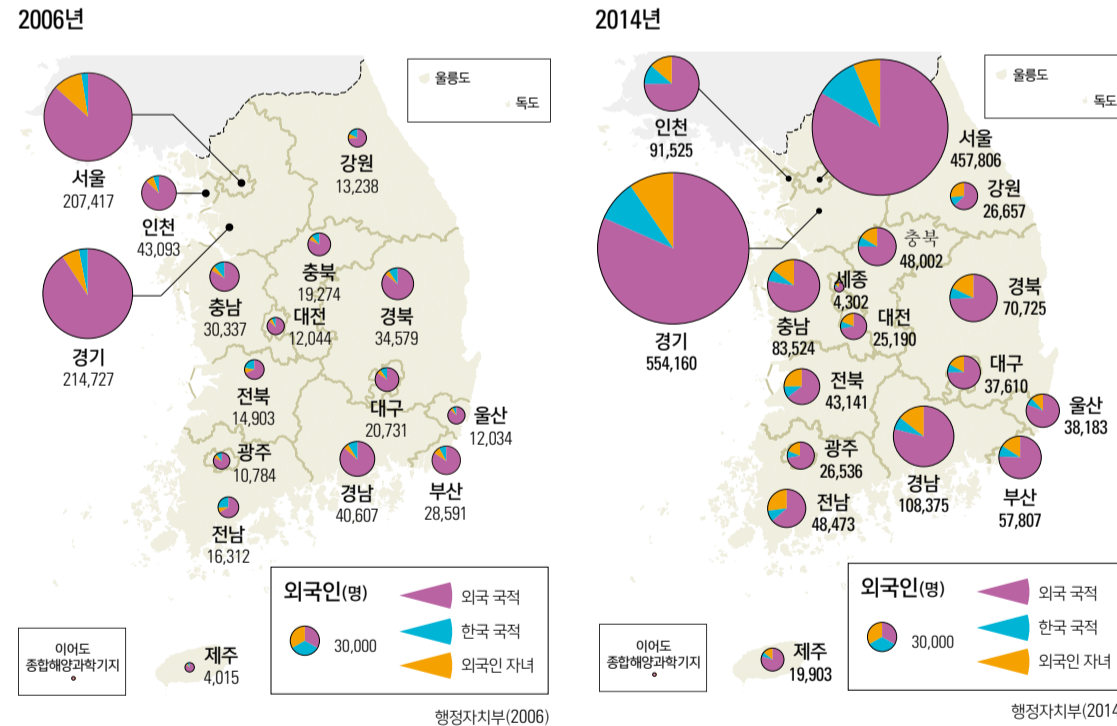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대비 외국인 자녀 비율(2014년)



외국인 세대 비율(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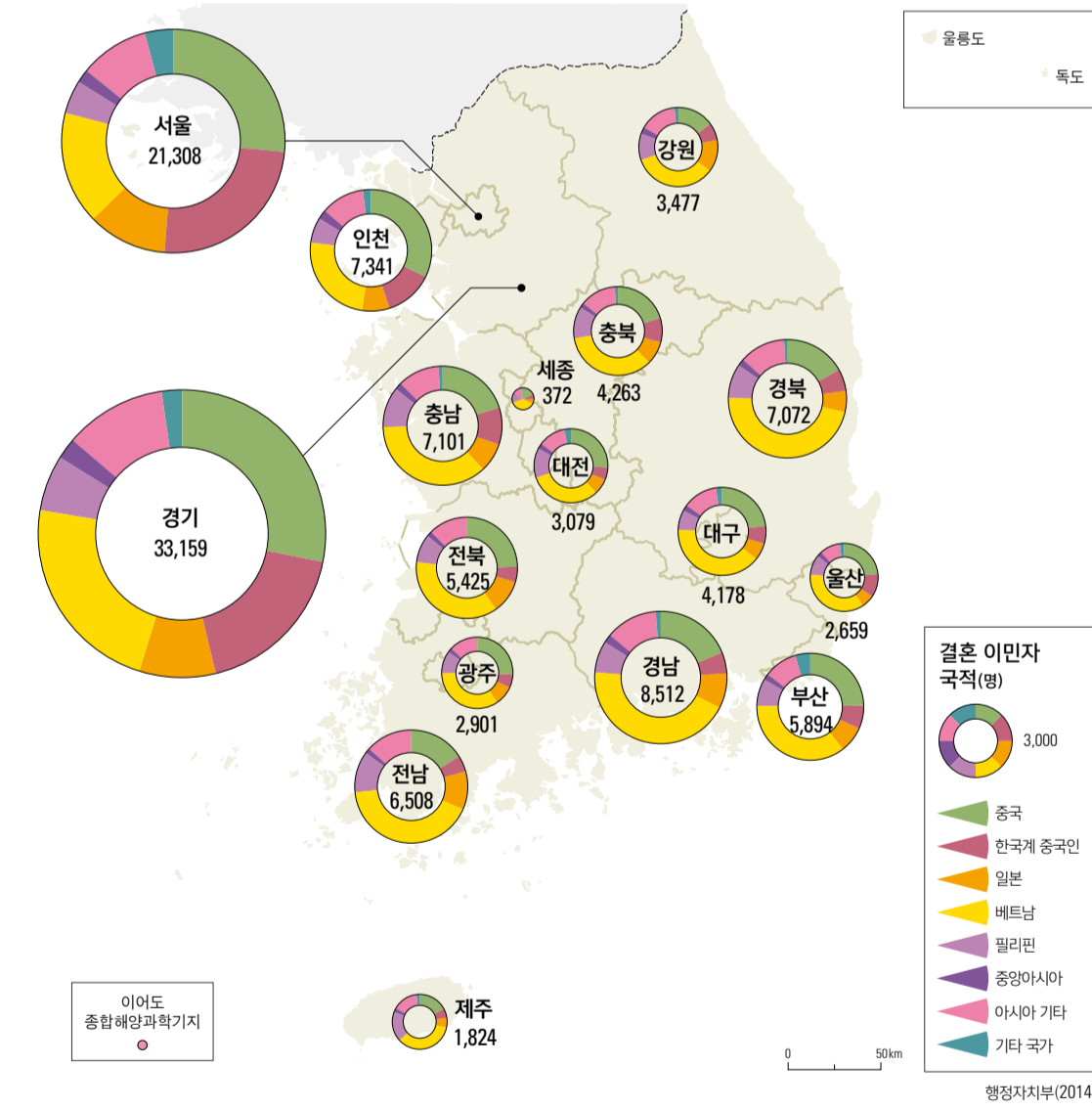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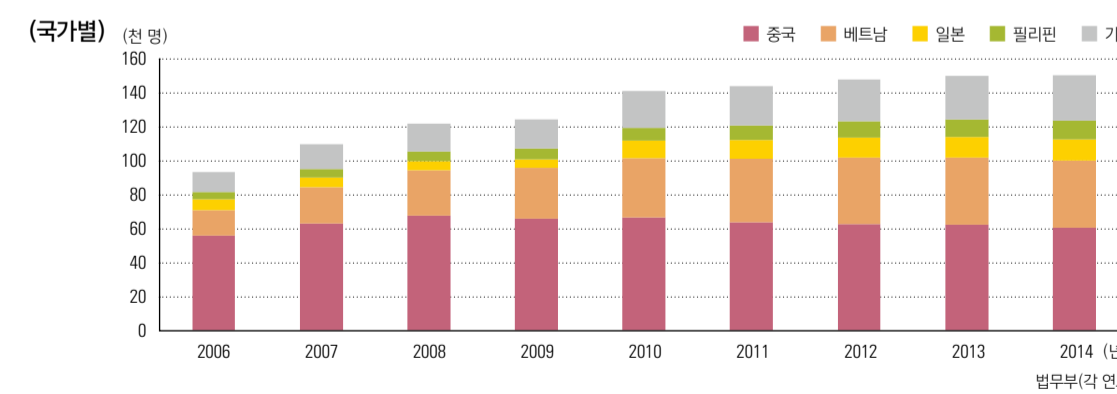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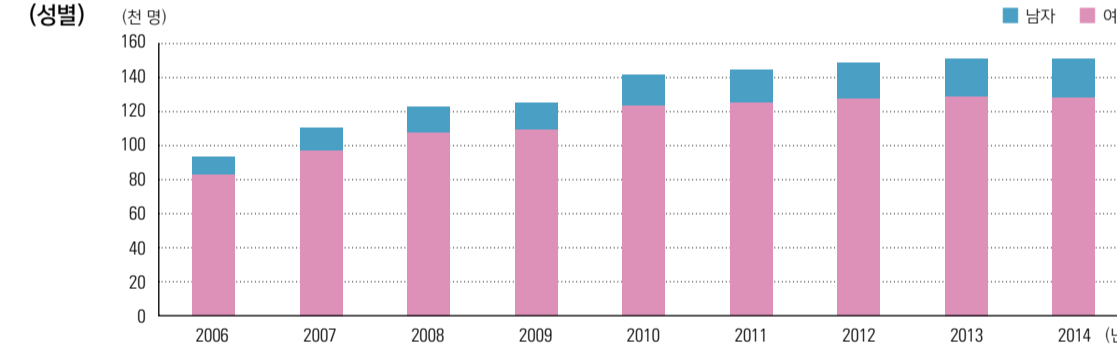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수는 2006년 72만 명에서 2014년 174만 명(남성 90만 명, 여성 84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2006년 대비 외국인 주민 증가율은 경기 울릉(743%), 충남 태안(431%), 전남 신안(412%) 등의 농촌 지역에서 증가 비율이 높다. 외국인 세대 비율은 서울 영등포, 서울 금천, 서울 구로, 경기 안산 등의 공업 지역이 4% 이상으로 매우 높다. 외국인 주민은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79%, 138만 명),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9.1%, 16만

여성 결혼 이민자 국적(2014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혼인 귀화자와 기타 사유 외국인으로 구분된다. 2014년 현재 혼인 귀화자는 9만 2천 명이며, 기타 사유자는 6만 6천 명이다. 외국인 주민 대비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비율은 평균 9.8%이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북구(17.4%), 전북 임실(16.9%), 충북 단양(16.8%) 등에서 높고 부산 강서(2.2%), 경남 거제(3.8%), 서울 용산(4.1%) 등은 낮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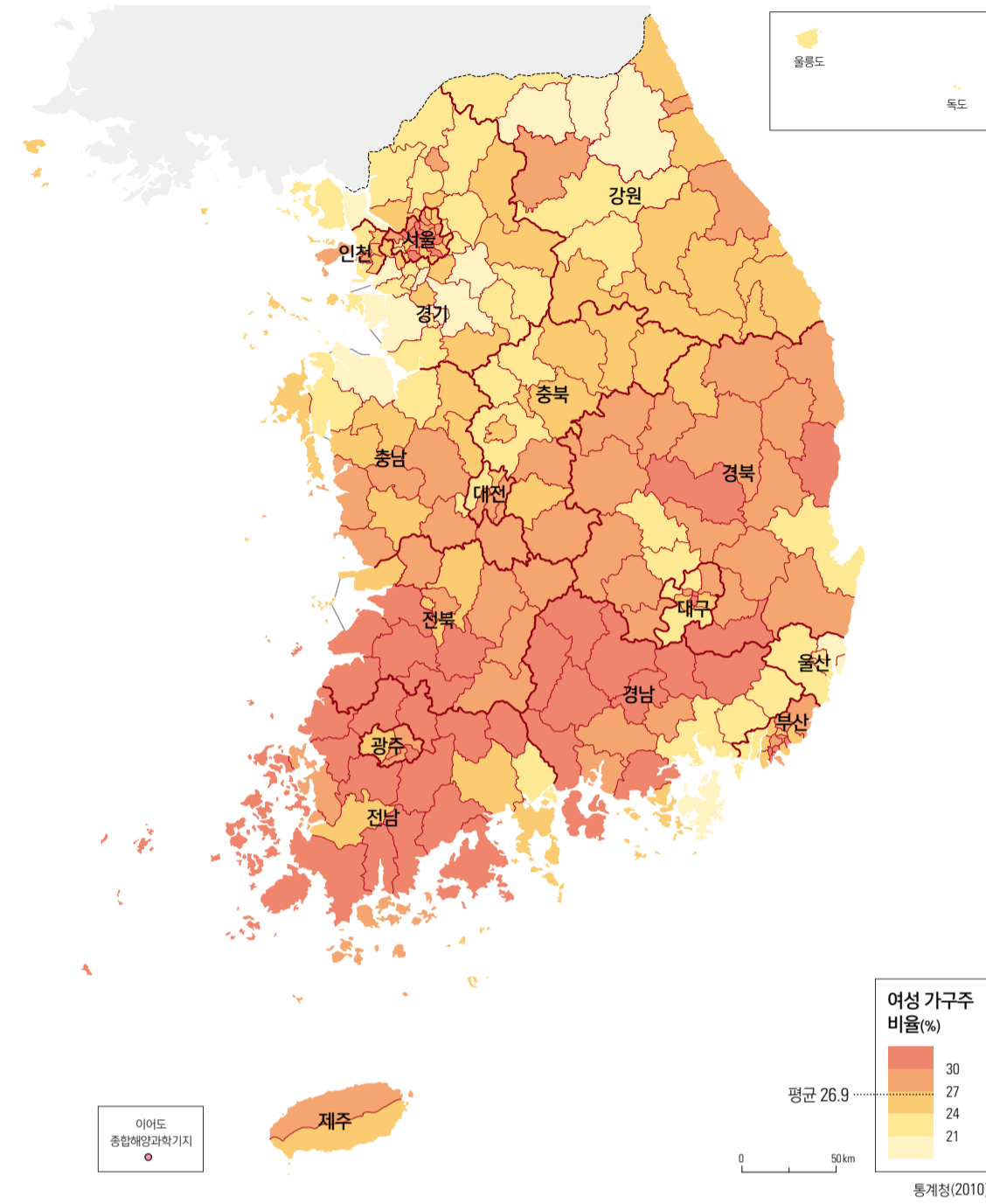
결혼 이민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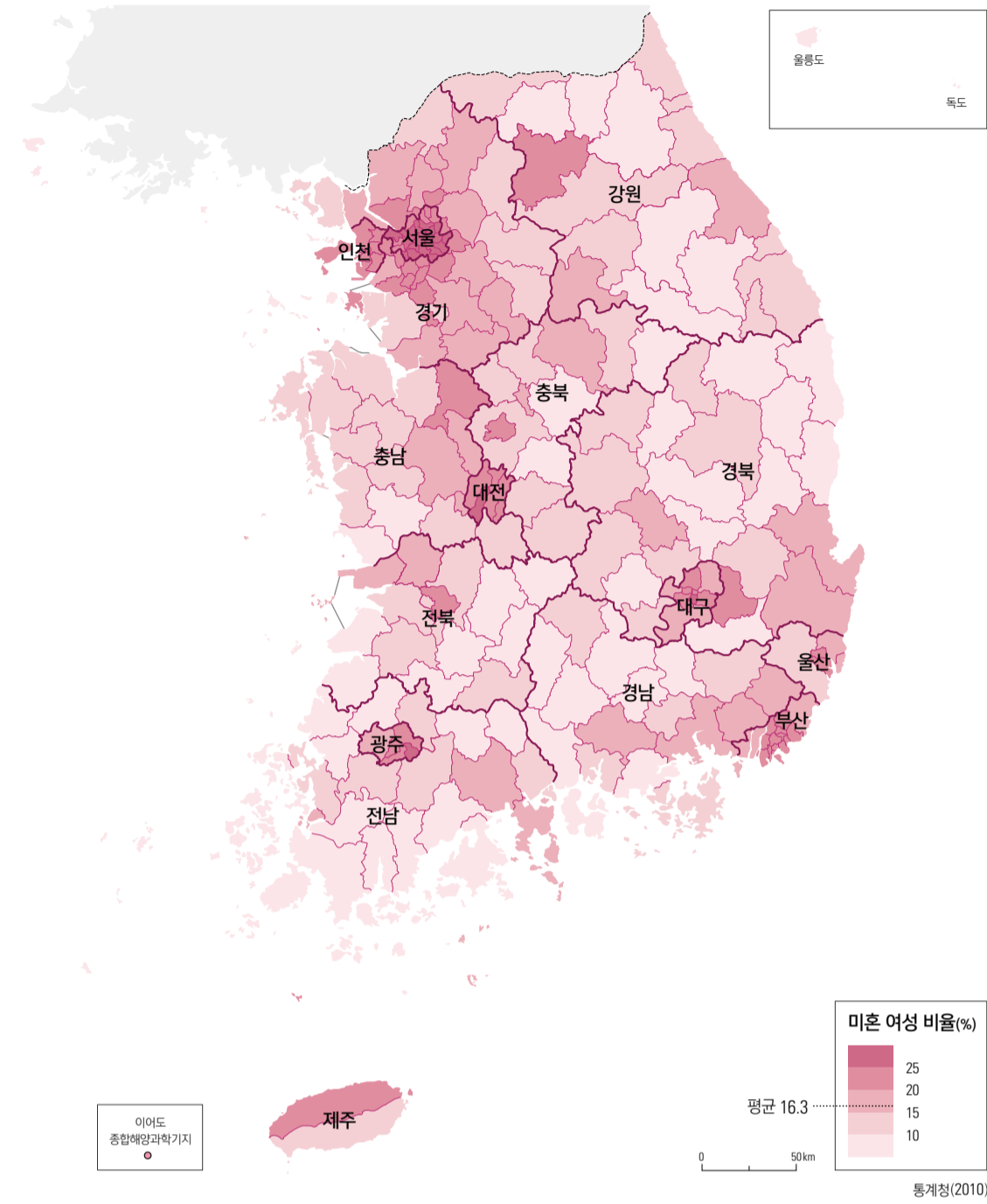
높은데 비해, 서울 영등포(3.0%), 서울 종로(3.7%), 서울 중구(4.0%), 서울 금천(4.3%) 등 대도시 지역에서 비율이 낮다. 이는 농촌 지역에 집중된 다문화 결혼과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결혼 이민자는 법무부 출입국 통계 기준으로 2006년 9만 3천 명에서 2014년 15만 1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여성이 2014년 12만 8천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의 지역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여성 및 고령 인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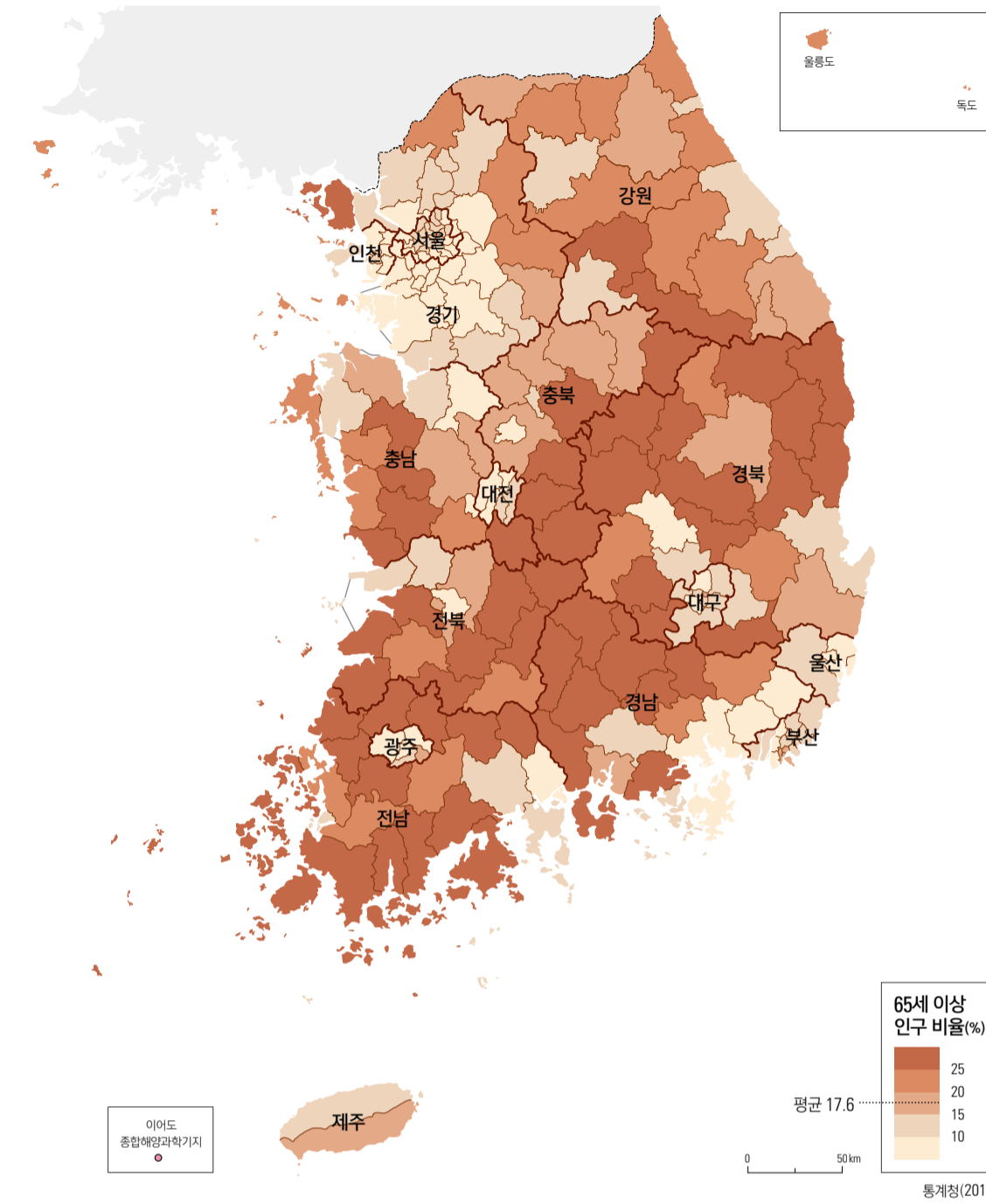
여성 가구주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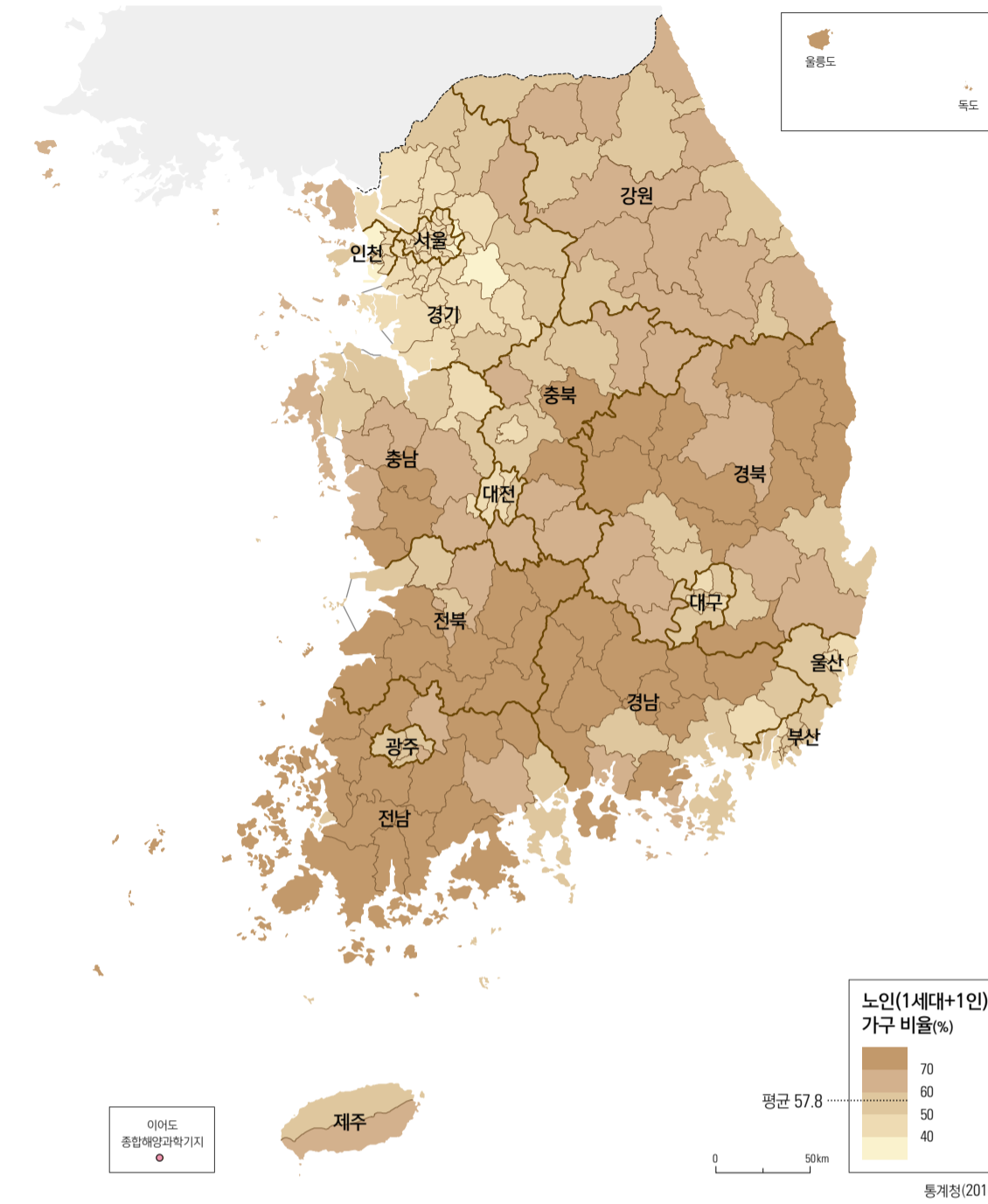
미혼 여성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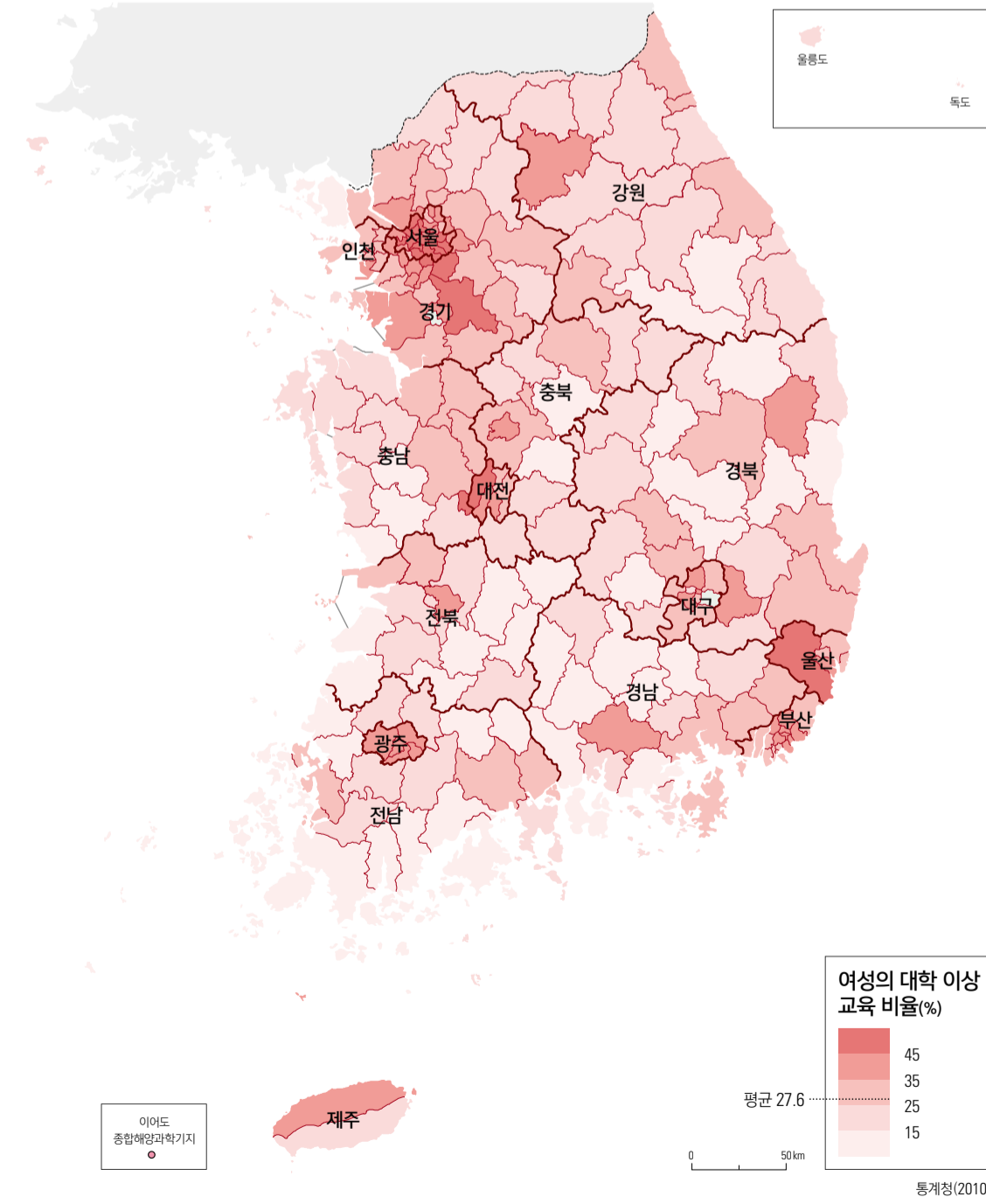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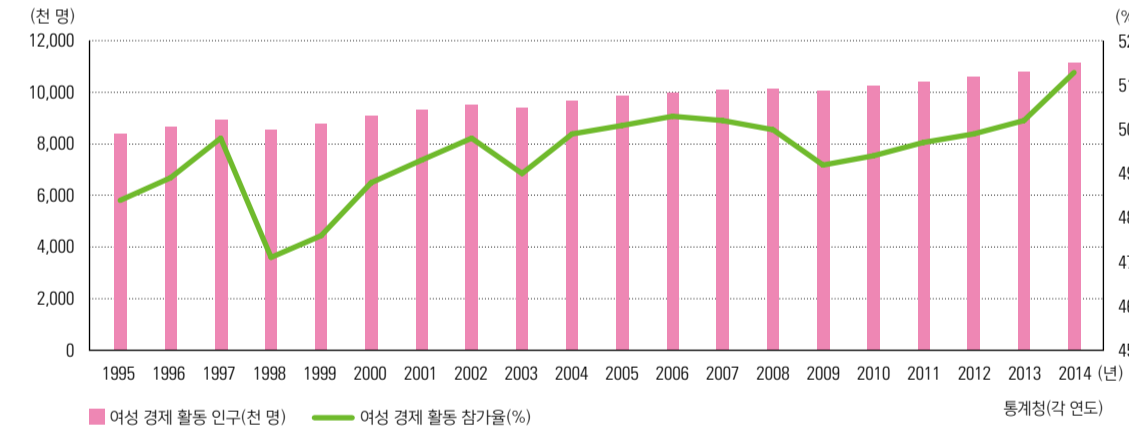
노인(1세대+1인) 가구 비율(2010년)



여성의 대학 이상 교육 비율(2010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우리나라의 성불평등 지수(GI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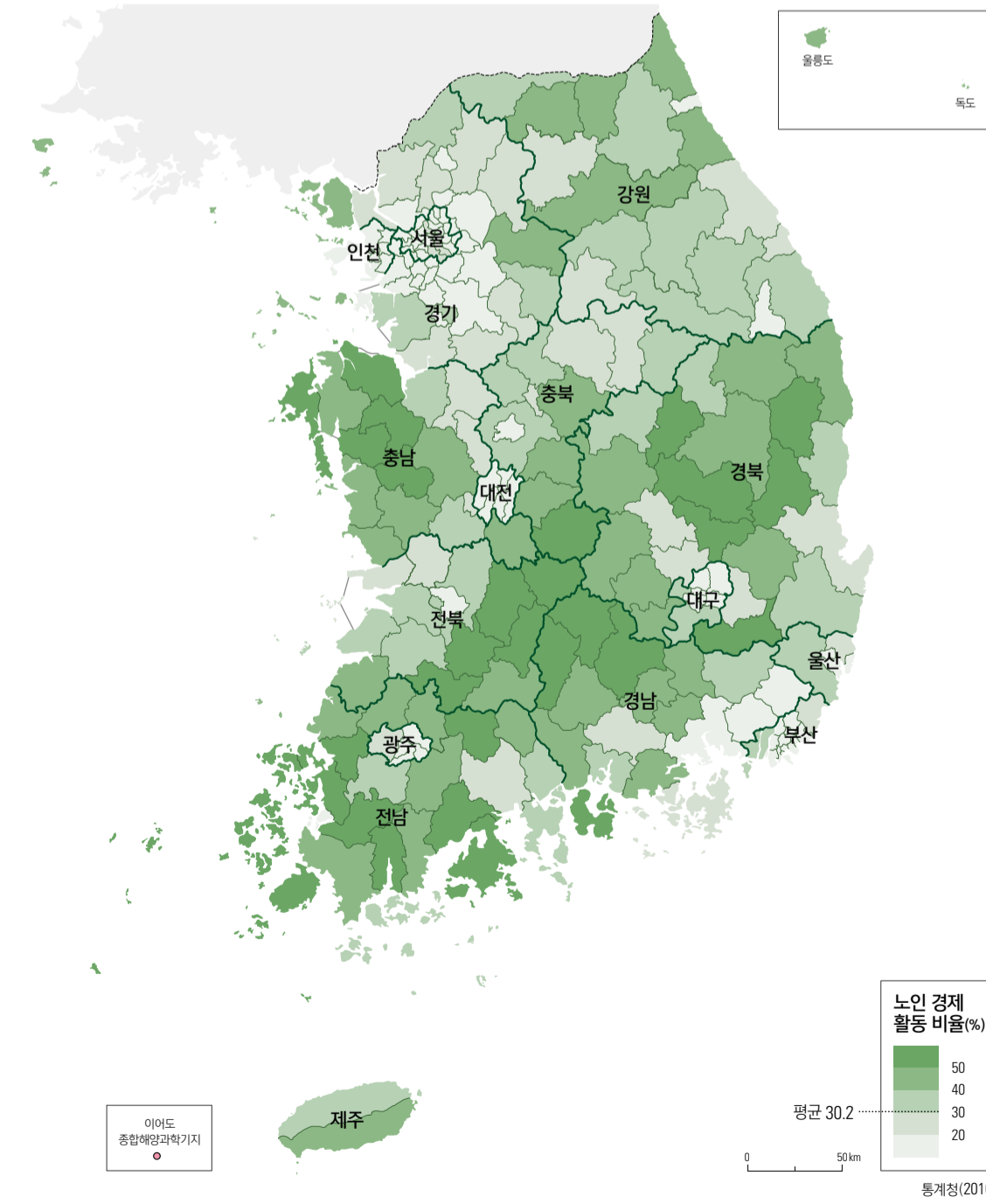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순위	20	11	27	17	23
대상 국가	138	146	148	152	155
점수	0.31	0.111	0.153	0.101	0.125

UNDP(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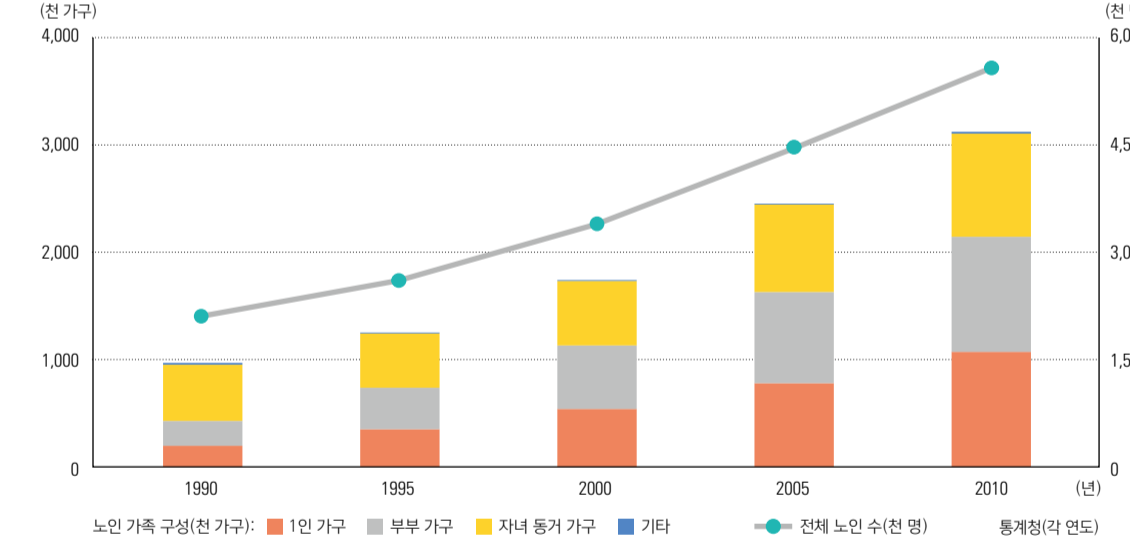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2,4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한다. 여성 가구주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으로 주민 등록상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평균 26.9%이며, 영남 및 호남권에서 비율이 높고 공업 지역 및 수도권에서 낮다. 여성 인구 중 미혼자 비율은 전국 평균 16.3%이며,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이 높으며, 농촌 지역이 낮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다. 대학 이상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율은 전국 평균 27.6%이며, 대도시 지역이 높고, 농촌 지역이 낮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여성 중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로 1995년 48.4%에서 2014년 51.3%로 정체 상태이다. 성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는 유엔개발계획이 각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새로 도입한 지수이다. 이는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 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등 5개 지표로 성불평등을 측정한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0.31 점에서 2014년 0.125점을 기록하여, 성불평등성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노인 경제 활동 비율(2010년)



노인 가족 구성의 변화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1990년 216만 명에서 2010년 542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요소는 자녀와의 동거 생활이다. 이를 위해 노인의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자녀-손자녀 동거(2세대 이상 가구) 비율이 54.2%로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30.8%로 감소하면서 자녀의 부모 부양이 낮아지고 있다. 대신 1인 가구(34.3%), 부부 가구(34.5%)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와 노인 복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의 전국의 비율은 17.6%이며, 경북 군위, 경북 의성, 전남 고흥 등이 35% 이상으로 농촌 지역이 높으며, 울산 북구, 대

전 유성, 경북 구미 등이 6% 이하로 대도시 및 공업 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노인의 가족 구성은 노인 가구 중 1세대 및 1인 가구의 비율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부부 혹은 노인만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노인의 가족 구성 비율은 57.8%이며, 전남 신안, 전남 고흥, 경남 합천 등이 78% 이상으로 농촌 지역이 높고, 인천 서구, 경기 구리, 인천 연수, 서울 강동 등이 40% 이하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노인 경제 활동 비율은 노인 중에서 경제 활동 참가자로 계산된다. 전국적으로 노인 경제 활동 참가율은 30.2%이며, 전남 신안, 경북 영양, 전남 영암 등이 57% 이상으로 농촌 지역이 높으며, 대구 달서, 인천 서구, 대구 수성, 부산 북구 등이 12% 이하 지역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이 낮다.